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기념 미주 탈북민대회가 7월 12일 오후 3시에 가든스위트호텔에서 AKUS 한미연합회, 오렌지카운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주최로 열렸다. 주최 측은 강연자 티모시 조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기독일보

“전세계 탈북민이 자유의 용사”

**북한이탈주민의날 제정 기념
 7월 12일 가든 스위트 호텔서
 미주 탈북민대회 개최**

“저는 전세계의 3만 4천여명의 탈북민이 자유의 용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과 고통을 이기고 세계 각지에 정착해서 비즈니스맨으로, 정치인으로, 교육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곧 열릴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어서 북한 땅에 변화가 오고 있다”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기념 미주 탈북민대회가 7월 12일 오후 3시에 가든스위트호텔에서 AKUS 한미연합회, 오렌지카운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주최, AKUS 한미연합회 LA의 남북통일분과위원회, NKIA 탈북민선교회, 미주북한인권 통일연대가 주관해 열렸다.

이날 강연을 한 탈북민 티모시 조는 앞서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21차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위해 방문한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본 문구 ‘프리덤 이즈 낫 프리’(Freedom is not free)가 매우 감명이 깊었다면서, 영국 맨체스터에 이르러 자

유를 얻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티모시 조는 탈북민 출신으로 영국에서 시의원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정치인이다. 그는 “오늘도 북한의 2천만 명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다. 그들을 위해 열린 이 행사에 서게 되어 영광스럽다”고 했다.

이어 “북한에서는 제가 어려울 때 부모님이 탈북했다는 이유로 저는 반역자의 아들로 딱지가 붙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는데 자유의 땅에 와서 제일 좋았던 것은 ‘펜’이었다. 취미 중의 하나가 펜을 수집하는 것인데, 펜과 책들을 모아서 북한에 보내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서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북한에서 세뇌 교육을 받고 있다. 그들을 위해 펜과 책을 보내주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탈북 후 영국에서 공부하는 가운데 제 스스로 한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어떻게 탈북이 가능했나’라는 것이었다. 탈북할 때 17세였고 북송 후 여러번 끔찍한 수용소 생활을 겪었다. 한번은 중국에서 18명과 함께 북송을 당했는데 감방에 탈북민이 가득 차서 누울

곳이 없어서 서로 등을 지고 잤다. 아침에 등이 너무 무거워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제 등에 의지하고 있던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죽음을 맞이했다. 그는 이미 고문을 받은 상태였고, 시체가 밖으로 끌려 나가는 것을 보았다. 함께 잤던 17명 중에 나만 살아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탈북 후에 중국의 외국인 감옥에 갇혀 두 번째 북송의 위기를 맞았다. 감방 안에 죄수 7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국인 죄수도 있었다. 건달 같았던 그가 나에게 작은 성경책을 주며 읽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 보라고 권유했다”면서 “그를 미친 사람이라고 여겼지만 죽음 앞에 나에게 남은 마지막 선택은 기도밖에 없었다. 그때 당시 내가 자살을 할까봐 칫솔을 주지 않아 손으로 양치를 하던 상황이었다.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아멘’을 하면 된다고 해서 ‘하나님, 저는 죽고 싶지 않아요, 북한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라고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를 하고 나서 거인 같은 사람이 헬리콥터를 타고 와서 나를 구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풀려나게 되었다”고 말을 이었다. 토마스 맹 기자 → 2면에서 계속

알립니다

원포인트 강해설교 세미나 개최

본지와 월드미션대학이 주최하는 신성욱 교수(아신대 설교학) 초청 원포인트 강해설교 세미나가 7월 29일(월)부터 30일(화)까지 오전 9:30~오후 4:50까지 한길교회(고광선 목사)에서 열립니다.

신학생, 목회자, 선교사 등을 대상으로 선착순 50명을 모집하며 참석자들에게는 강의안 및 점심식사가 제공됩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QR코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원포인트 강해설교는 하나의 핵심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설교를 전개해 나아가는 설교로, 성경본문에 충실하면서도 청중의 관심을 사로잡는 효과적 설교 방식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설교의 새 지평을 열 수 있길 기대하

며 남가주 지역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을 초청합니다.

‘원포인트 드라마틱한 강해설교’를 개발한 신성욱 교수는 계명대, 총신대 신대원, 트리니티 신학교(Th.M 구약학 수료), 칼빈 신학교(Th.M 신학약), 남아공의 프레토리아 대학에서 수학했고, 현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일시: 7월 29일(월)~30일(화)
 오전 9:30~오후 4:50
 주소: 4050 W Pico Blvd, LA, CA 90019
 문의: 213-434-1170
 chdailya@gmail.com



2023년, 성경과 쪽복음 등 총 1억 5,200만 부 보급

**성경전서 총 2,420만 부 보급
 중남미 1억 11만여 부로 최다**

2023년, 총 2,420만 부 이상의 성경전서가 전 세계에 보급됐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UBS)가 최근 발표한 2023년 세계 성서 반포 현황에 따르면, 성경전서뿐 아니라 신약 및 단편 성서, 어린이를 위한 성서까지 합하면 총 1억 5,200만 부가 넘는 성경이 반포됐다.

대륙별로는 중남미 지역에서 성경전서 770만여 부와 총 1억 11만여 부로 가장 많았다. 아시아 지역이 성경전서 750만여 부와 총 2730만여 부의 성경을 보급했으며, 아프리카 지역이 성경전서 590만여 부와 총 890만여 부

로 뒤를 이었다. 유럽은 성경전서 130만여 부와 총 200만여 부, 북미 성경전서 110만여 부와 총 180만여 부, 오세아니아 성경전서 71만여 부와 총 80만여 부, 중동 성경전서 13만여 부와 총 40만여 부를 각각 기록했다.

UBS 더크 게버스(Dirk Gevers) 사무총장은 “전 세계 성서공회들이 온라인 플랫폼과 디지털 채널을 활용하여 성경을 적극적으로 반포할 기회를 늘려 나가는 한편, 인쇄 성경에 대한 꾸준한 관심은 성서 출판이 여전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말씀은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말했다. 이대웅 기자 → 2면(아이티 성서공회...)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 법륜서비스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태양광, 솔라!!
 2024년 대박
 ◎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 연방ITC: 30% 이상
 ◎ 솔라 셀비의 광가상가비 총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www.marhlaw.com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변호**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 실력**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 정성**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 책임**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 활짝 열림
- 신뢰**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

상법/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동환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가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뱅크러시
 뱅크러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포리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 a 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무엇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는가? 존재의 가치는 ...”

동양선교교회 54주년 기념 김동호 목사 초청 부흥사경회

창립 54주년을 맞아 동양선교교회(담임 김지훈 목사)는 김동호 목사(전 높은뜻연합선교회 대표)를 초청해 7월 12일(금)부터 14일(주일)까지 부흥사경회를 진행했다.

부흥사경회 두 번째 날인 토요일 오후 6시 고린도후서 3장 1-5절 말씀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김 목사는 물질적 삶의 변화가 영혼의 만족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때까지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먹고 전기도 나오지 않았다. 51년생인 저는 신장도 하나 제대로 못만들 때 태어났다. 저희 세대는 바닥에서 여기까지 왔다. 영락교회에서 부목사를 할 때, 포니 자동차를 주셨는데 비가 오면 조수석에 물이 고여서 옆에 플라스틱 바가지를 놓고 다녔다. 초등학교 다닐 때 라디오, 선풍기, 전화, 냉장고, 그때 아무 거나 하나 있으면 부자였다. 선풍기가 있으면 부자였다. 텔레비전이 동네 하나 있던 시대였다.”

그는 한국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사람들에게 행복하다고 물어보면, ‘마지 못해 삽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라는 대답이 변동이 없으며, “부자들이 돈 벌어서 답을 쌓고 철망을 친다. 많이 편해지는 것 만큼 불안해진다. 답을 높인다는 것은 불안하다는 것이다. 돈을 편안하게 해주지만 평안하게 해주지는 못한다. 이것이 돈의 한계”라고 말했다.

이어서 에리히 프롬을 인용하며 삶의 진정한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물었다.

“에리히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는 책에서 인간을 두 유형으로 나눈다. 소유형의 인간과 존재형의 인간. 소유형의 인간은 인간의 삶



창립 54주년을 맞아 동양선교교회(담임 김지훈 목사)는 김동호 목사를 초청해 7월 12일(금)부터 14일(주일)까지 부흥사경회를 진행했다. ©기독교일보

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소유에 두는 사람인데, 우리가 대부분 거기 속해 있다. 존재형은 소유를 무시하진 않지만 그렇지만 인간답게 사는 데 최선을 다하는 인간이다.”

“92년도에 한국 아이들이 1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운동화를 신고 다녀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내세울 것이 없으니 비싼 신발을 사고, 그것을 내세운다. 사람은, 자신의 존재가 가치를 발견할 때 행복해진다. 예수를 믿으면 존재 가치가 높아진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도’의 의미는 있는 게 좋다는 의미이다. 그렇지만 없어도 괜찮다는 의미이다. 예수 안 믿고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예수 안 믿고 부자는 될 수 있다. 예수 안 믿고 건강하게 100살 넘게 살 수 있다. 그러나 예수 안 믿고 존재 가치를 높이지는 길이 없다. 존재 가치는 존재 목적에서만 온다. 모든 존재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대로 존재할 때 가치가 있다. 존재가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가치를 잃어버린다.”

김동호의 존재 목적은 내가 만드는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는가?

“모든 존재의 목적은 존재로부터 말미암지 않는다. 존재케한 이로부터 말미암는다. 김동호의 존재 목적은 김동호가 만드는가, 김동호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는가? 내가 잘 산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인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과 목적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정말 잘 사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아내와 손편지를 주고 받았던 때를 회상하며,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길 원한다고 고백했다.

“77년도에 신대원을 졸업했는데 그때는 목사가 된다는 것은 가난하게 살 각오는 해야 했다.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었다. ‘편지 쓰는 마음으로 살아서 내 삶을 당신에게 줄게’ 그제 약속이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 내 삶이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여야 하겠다. 저는 처음에 같은 줄 알았다. ‘그런데, 바울이 말

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쓴 편지’이다. 사람들이 내 삶을 보면,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김동호 목사 (전 높은뜻연합선교회 대표). ©기독교일보

“세례 요한은 스피커이다. 말씀은 예수님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스피커이다. 예수님이 스피커가 맘에 안 드는 것이다. 시끄럽고 웅웅거리고, 다른 소리가 나고 예수님이 정말 마음에 드는 스피커를 찾았다. 그게 세례 요한이었다. 세례 요한. 그에게는 소리가 났다.”

택배 배달을 해도 부끄럽지 않아 과거, 은퇴 후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계획했던 사실을 나누며 설교를 마무리했다.

“교회 원로 제도를 없앴다. 제 나이에 목회 밖에 못하는 사람이 70 넘어서 150만원을 버는 것 어렵다. TV를 보는데 노인 택배에 대한 다뤘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고용해서 지하철로 서류를 전달하는 일이다. 평균 한 달 80만원을 번다. 저것 하면 되겠구나. 연금이 깨지면 택배하러 나갈 것이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하든 가난하든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주디 한 기자

→ 1면 기사 <전세계 탈북민..>에 이어서

중국에서 붙잡혔을 때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를 보고 울었다. 그 중에 10세 아이와 일부가 기자들에게 나를 살려달라고 메일을 보내고, BBC와 CNN 등 세계 언론에 보도됐다. 이 소식을 접한 이들이 세계의 중국 대사관에 시위를 하는 결과로 이어져서 필리핀으로 추방되어 풀려나는 놀라운 일들로 이어졌다”고 했다.

티모시 조는 “16년 동안 자유의

땅 영국에서 사는 동안 힘들었던 것은 북한에서 보았던 각종 인권 유린이 꿈에서 보이는 등 여러 트라우마로 고통을 받는 것이었다. 아직도 많은 탈북민들이 조국 땅에 잡혀 포로 수용소에서 고문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라면서 “저는 전세계의 3만 4천여명의 탈북민이 자유의 용사라고 생각한다. 이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곧 열릴 것이다”고 했다.

아이티성서공회, 희망 프로젝트 착수

→ 1면 기사 <2023년, 성경과 쪽북 음..>에 이어서 UBS는 지난 2022년 전 세계에 총 1억 6,640만 부의 성서가 보급됐고(신·구약, 쪽북음 포함), 3,530만 부 이상의 성경(성경전서)이 반포됐다고 전한 바 있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성경전서는 1,100만여 부 감소했고, 쪽북음 등을 합한 총 부수로는 1,400만여 부 감소했다. IT 발달로 인쇄물 성경의 수요는 줄고 있지만, 여전히

전 세계 곳곳에서는 성경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 세계 성서공회들은 여러 열악한 환경에서도 성경 반포에 힘쓰고 있다. 중남미 빈국 아이티에서는 아이티성서공회가 가장 취약한 계층인 어린이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일에 소명을 두고, 굳건히 사역을 수행하고 있다. 여러 어려움에도 아이티성서공

회는 20곳 이상의 학교에 소책자와 성경을 보급해, 1만 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아이티성서공회는 아이티에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사역으로,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아이티를 위한 희망’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극심한 빈곤과 폭력 및 최근 잔혹한 사건들로 씨름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이티성서공회는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위로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다.



BewhY Concert in LA with Loving Worship

Tickets —
axs.com

Ticket 문의 —
213-357-1565
\$120 | \$100 | \$80

협력 기관:
기독교일보
미주 중앙일보
미주 CBS방송

**7PM — Saturday
Aug 17 2024**

**The Novo Theater
800W Olympic Blvd
Los Angeles 90015**

협력 교회:
LA 온누리교회
은혜한인교회
나성영락교회
충현선교교회
베델교회

ANC 온누리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토렌스 조은교회
새생명비전교회

MOVEMENT IX

창립 120주년 기념 LA연합감리교회 말씀 집회

김기석 목사, “내게 기대어 오는 사람에게 믿음 전해주는가?”

LA연합감리교회(담임 이창민 목사, 7400 Osage Ave. LA, CA 90045)가 창립 120주년을 맞아 김기석 목사를 초청해 <진리의 오름길에 오른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7월 13일(토)부터 14일(주일)까지 양일에 걸쳐 말씀집회를 열었다.

젊었을 때는 로마서 1~8장이 마음에 와닿았지만, 중년에 이르러서 로마서 후반부가 더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다. 운을 댔 김기석 목사는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이후 후반부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 예배 핵심은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데 있다. 이것이 바울 사도 윤리의 기본적 핵심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나의 삶 속에 부동켜 안는 것이 흘러넘침의 윤리이다.”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수많은 신앙의 동역자들을 언급하고 있다. 신앙은 홀로 자립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동역을 통해 가능한 것임을 정현종 시인의 시를 통해 설명했다.

“정현종 시인이 <비스듬히>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세상 모든 것들이 서로 비스듬하게 기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가 나를 필요로 할 때 그의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내 곁에 있어 줄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살 수 없는 게 인간의 존재이다. 우리는 나무가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위로 솟아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시인의 상상력은 ‘나무가 위로 올라가면서 있을 수 있는 것은 공기를 기대고 서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한다.”

“나하고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고, 맑은 하늘과 같이 상쾌한 사람이면 나 또한 저절로 마음이 맑아진다. 내가 기대고 있는 사람이 흐리고 슬픔에 젖어 있으면 내 마음도 우울해질 수밖에 없다.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내게 기대어 오는 사람에게 믿음을 전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 누군가에게 기쁨 언덕이 되어 주는 것이고 설 땅이 되어 주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가 내게 기대울 때 나로 말미암아 그가 맑아지기를 소망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목사는 담임목회를 할 때, 밤 12시 30분에 교인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고, 밤을 새우며 누군가의 임종의 자리를 함께 지키고 새벽 5시경 집으로 돌아오곤 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빈 소 차리는 것을 보고 새벽 5시경에 집으로 돌아온다. 밤을 꼬박 새웠다. 그때 다시금 택시를 잡아타고 오면서 제게 드는 생각이, 참 감사하다. 왜 감사하냐면, ‘내가 뭐라고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나를 떠올리고 나를 찾는가.’ ‘얼마나



LA연합감리교회(담임 이창민 목사)가 창립 120주년을 맞아 김기석 목사를 초청해 <진리의 오름길에 오른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7월 13일(토)부터 14일(주일)까지 양일에 걸쳐 말씀집회를 열었다. ©유튜브 스크린 샷

고마운가.’ 몸은 고단하지만 생각해보면, 내가 누군가의 요구에 응답하여 그의 슬픔의 순간을 함께했다고 하는 사실이 나 스스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고 경험을 나눴다.

“인생의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 뭔가를 했을 때 보람을 느끼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해서 거기에 응답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그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지만 여전히 자아와 자기 의가 무너지지 않았을 수 있다며, “교회가 가장 아름다워질 때는 자아가 무너지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낚아채는 마음이 있을 때이다. 그때 교회는 든든히 서기 시작한다”며 120년의 역사를 지켜온 LA연

합감리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맹그로브 나무는 바닷물과 민물이 교차하는 곳에 있기 때문에 뿌리로 염분을 흡수할 수밖에 없다. 식물은 염분이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맹그로브 나무는 생존을 위한 전략을 세웠다. 뿌리의 조직을 촘촘하게 만들어서 염분이 체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만들었다. 그러나 아무리 촘촘한 방어막이라 해도 뚫고 들어오는 염분이 있다. 그때 맹그로브 나무는 그 염분을 물관을 통해서 특정한 나뭇잎으로 보내고, 염분을 이렇게 머금게 된 나뭇잎은 색이 변하기 시작하고 오렌지 빛깔을 띠게 되고 더 이상 염분을 수용할 수 없게 되면은 특 떨어진다. 강물 위를 떠가고 있는 그 오렌지빛 그 나뭇잎은

맹그로브 나무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나뭇잎이다.”

“한 사회가 건강해지는 것은, 비판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다. 그들은 세상을 평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지 않는다. 말없이 그 모순과 아픔과 갈등을 자기 속으로 끌어들이 스스로 정화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공동체는 건강해진다. LA 연합감리교회가 120년에 전통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그런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 있는 아픔과 소름과 갈등 같은 것들을 자기 속으로 품어 하나 정화하는 사람들이 되기 바란다.”

LA연합감리교회는 1904년 3월 11일 한국에 선교사로 나갔던 Florence Sherman 여사가 힐스트릿에 있는 건물을 빌려 젊은 한인 유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시작되어, 이후 정동교회 출신 신우가 초대 목회자로 세워지면서 미 최초 한인교회의 역사를 열었다.

이후 1920~40년 민찬호 목사, 한승근 목사, 황사용 목사, 장기형 목사를 거치며 미주 한인사회는 물론 독립을 위한 사역들을 담당했다. 1953년, 프린스턴 신학대학에서 공부하던 최영용 목사가 파송되면서 한여 1세 중심에서 이민 학생들로 구성원이 바뀌며 큰 변화를 맞으며 크게 성장했다.

70~80년 새로운 이민 물결이 밀려올 무렵, LA연합감리교회는 LAX 국제공항 근처로 이전했고 해외선교 활동에도 더욱 박차를 가했다. 주디 한 기자

한미연합회, 2024-2025 모의유엔 프로그램, 학생 모집

한미연합회(KAC, 대표 유니스 송)는 2024-2025년도 모의유엔(Model United Nations, 이하 “MUN”) 프로그램에 참여할 중·고등학생들을 모집한다.

KAC MUN 프로그램은 차세대 글로벌 리더 양성의 일환으로 2006년에 창설되어 지난 19년동안 참가 학생들의 글쓰기, 비판적 사고 능력, 연설, 설득력 및 지도력을 키우는 교육을 진행하고, 학생들이 직접 주도하는 모의유엔 대회와 지역사회 현안 옹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왔다. 지난해 MUN 학생들은 3개의 크고 경쟁력있는 모의유엔

대회에 참가하여 총 14개 상을 수상하였고, KAC MUN 프로그램을 수료한 학생들 중에는 Stanford, Duke, Columbia, Dartmouth, Boston University, Vanderbilt,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C Berkeley, UCLA 등 우수한 대학에 입학하는 성과를 거둔 학생들이 많다.

2024-2025 KAC MUN 프로그램은 오는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매주 수요일 2시간 30분씩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며, 대회 준비를 위한 세션을 한 달에 한 번 한미연합회 사무실에서 가질 계획이다. 참가 대상은 ▲남가주 소

재 학교에 재학하는 8학년에서 11학년 중·고등학교 학생 ▲12학년은 이전 KAC 모의유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

프로그램 조기 지원 마감일은 8월 2일(금)이고 정규 지원 마감일은 8월 9일(금)이다.

서류 전형에 합격하면 면접일은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조율하고, 최종 선발자는 8월 21일까지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지원 방법은 지원서와 함께 이력서와 추천인 정보, 학교 성적표 등을 첨부해 구글 링크(bit.ly/24-25MUNApplication)를 통해 지원하거나 한

미연합회 웹사이트 (/kacla.org/model-united-nations-mun)에서 지원하면 된다. 프로그램 등록비는 8월2일까지 조기 지원할 경우 135불, 8월 3일부터 9일까지 지원하면 150불이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매달 75불의 수업료가 부과되며, 자격 요건을 갖춘 학생들에게는 장학금 혜택도 제공한다.



한미연합회 '2024-2025년도 모의유엔 프로그램 문의: 전화 (213) 365-5999 또는 이메일 programs@kacla.org 김민선 기자

핫한여름쿨한세일

NEW 2024 HYUNDAI Palisade Calligraphy

0%

APR Financing

60개월까지 할부 가능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Ioniq 5 ONLY)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Up to 48Months

NEW 2024 HYUNDAI Tucson Hybrid SEL Convenience AWD

NEW 2024 HYUNDAI Kona SEL

NEW 2024 HYUNDAI Santa Fe Limited

Steve Chang 213.235.6825 | Paul Kim 714.331.3855 | Mike Lee 714.914.8414 | Justin Kil 213.999.3935 | Charley Jeong 213.276.8959 | James Park 213.839.3332 |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888-644-7114 |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OC교계, 새벽을 깨울 차세대 목회자 21명 세운다

7월 22일~8월 14일 총 21일, 갈보리선교교회서

OC교계가 2024년 여름, 새벽을 깨우기 위해 다시 뭉쳤다.

오렌지카운티 교회협의회(회장 심상은 목사)가 주최하는 차세대 목회자 21인 초청 OC대각성 새벽 기도회가 다음 주 초부터 21일간 실시된다.

올해로 3회째는 맞는 OC대각성 새벽기도회는 7월 22일(월)부터 8월 14일(수)까지 갈보리선교교회(담임 심상은 목사)에서 평일 오전 5시 30분, 토요일 오전 6시에 진행된다.

OC교협, OC목사회, OC여성목사회, OC장로협, OC기독교전도연합회가 공동 주관으로 열리며, 심상은 목사는 “올해는 ‘그리스도인이여 탄식하며 울어라’(겔 9:4)라는 주제로 열리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져 가는 이 세상을 보며

탄식하고 울어야 할 상황인데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시대의 흐름을 따르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대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창남 목사는 “1차, 2차는 팬데믹이 끝나고 난 뒤 무너진 영적인 분위기를 재건하는 분위기였다면, 이번 3차는 미국 사회가 비성경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신앙을 지키기 힘든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기도회에는 강서기 목사(행복한 교회), 양홍규 목사(굿렌즈교회), 인상훈 목사(섬김의교회), 류진욱 목사(남가주은혜로운교회), 조성우 목사(예수교미주성결교회), 박종순 목사(제자들과교회), 박현준 목사(애나하임 탐교회), 김



7월 22일(월)부터 8월 14일(수)까지 갈보리선교교회에서 차세대 목회자 21인 초청 OC영적 대각성 새벽기도회가 평일 5시 30분, 토 6시에 진행된다.

정호 목사(가스펠교회), 김도일 목사(세계등대교회), 김상욱 목사(치노힐스 미주새한교회), 김영호 목사(LA 소망선교회), 유요셉 목사(탈북 목회학 박사 과정 중) 등이 강사로 설 예정이다.

차세대 목회자 초청 OC 영적 대각성 새벽기도회는 2022년에 OC 지역의 숨어 있는 젊은 목회자를 발굴해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로 세우기 위해 시작되었다. OC교협은 앞서 열린 1,2차 집회

에 대해, “차세대 목회자들이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회를 통해 다시 한 번 사명을 발견하고 목회의 힘과 열정이 회복되는 열매가 맺어졌다”며, “모든 것이 회복이었다”라고 보고했다.

한편, 8월 15일(목) 오전 10시에 은혜한인교회 2층 친교실에서 ‘3050 차세대 목회자 세미나’가 열리며 한기홍 목사가 대회장으로 섬긴다. 목회자 및 부교역자 선착순 100여 명을 초대한다.

9월 1일(일) 오후 5시 은혜한인교회 2층 친교실에서 30대에서 60대 현역 사모 200여 명을 초청해 축복, 위로, 회복과 도전을 나누는 ‘2024 사모 블레싱 나이트’가 열린다. 등록비는 없으며 풍성한 식사와 푸짐한 선물이 제공된다.

기간: 7/22(월)-8/14(수) (주일 제외)
시간: 평일 오전 5:30, 토 오전 6시
문의: 714-722-4805 토마스맹기자



‘2024 과테말라 아이캠프’ 참가자들이 환자들과 함께 한 모습. ©VCSW 제공

비전케어 과테말라 107명에 개안수술

국제의료구호단체 비전케어 미서부지부(이사장 서영석)는 7월 2일 부터 7월 5일 까지 나홀 동안 과테말라 페텐 지역에 있는 지역 병원에서 무료 아이캠프를 진행했다.

나홀동안 진행된 ‘2024 과테말라 아이캠프’에서는 총 369명이 안질환 검진을 받았으며, 이 중 증세가 심각한 107명에게 무료 배내장 수술을 제공했다. 시력을 잃어가는 중고등학교 학생 3명에게 무료 맞춤형안경을 제공하

기도 했다. ‘2024 과테말라 아이캠프’에는 안과전문의이자 비전케어 미서부지부 이사장 서영석은 활동하는 조성진전문의와 리사 황 전문의가 동행해 안검진 질환과 수술 과정을 모두 이끌었으며, 뉴욕의 엘리노어 김 안과전문의 외에 학생 및 성인 13명 등 총 16명이 참여했다. 비전케어 미서부지부는 또한 매년 한인 커뮤니티내 무보험자와 저소득층 한인들을 위해서도 무료 아이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조셉 리 기자

『우주적 구원 드라마로 읽는 바울 신학』 출판 기념회

이상명 박사 신간 발표 바울 신학을 드라마로 재구성한 첫 학문적 시도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대학교(전,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가 최근 번역 출판된 『우주적 구원 드라마로 읽는 바울 신학』 출판 기념회가 지난 28일(금) 오후 3시, 프레스티지대학교 멀티룸에서 열렸다.

프레스티지대학 강정자 교무처장의 사회로 시작된 행사는 저자 소개, 작가의 인사말, 기도 김은철 교수, 서평 정성욱 교수(덴버신학대학교 조직신학교수), 장동수 교수(전,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 임운택 교수(본교 선교대학원 박사원 원장), 민종기 목사(충현선교교회 원로 목사, 재미한인기독교선교재단 대표이사), 작가와의 대화 순서로 진행됐다.

이상명 총장은 출판기념회의 소감으로 바울의 이름으로 기록된 13개의 서신을 4막(1막-무율법 시대, 2막-율법 시대, 간막-다



이상명 총장 '우주적 구원 드라마로 읽는 바울 신학' 출판기념회. ©ptsa.edu

메세에서의 그리스도 현현, 3막-교회 시대, 4막-그리스도 시대)의 드라마로 풀어낸 본서가 바울 연구에 기여하고, 바울 학회의 점예한 이슈인 그리스도와 율법의 관계 정립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이 책은 바울 신학을 드라마로 재구성한 첫 학문적 시도이고,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그레코-로만의 파이데이아(교육 또는 훈련 과정) 개념으로 설명한 첫 번째 학술 서적이다.

이상명 박사의 저서 『우주적 구원 드라마로 읽는 바울 신학』 구입은 Artesia에 위치한 복음사(562-865-4949)에서 가능하다. 앞서, 2010년 이상명 박사의 논문 “The Cosmic of Salvation, the Law, and Christ in Paul’s Undisputed Writings: From Anthropological and Cosmological Perspectives”가 독일 튀빙겐의 신학 전문 출판사인 모어지맥(Mohr Siebeck)에서 출간된 바 있다. 김민선 기자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교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교문 :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70% Tax Benefit

*** 전기세 50~90% 절감 ***

2023년 대박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56% ~ 70%**

연방 ITC : 30% 이상
 감가상각: 최대 80%적용 (2023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가?)

-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설치 가능
- ✔ 최고 성능의 패널 사용
- ✔ Zero Down Payment (PPA의 경우)
- ✔ 전기료 50~90% 절감
- ✔ EV Car 사용자 Outlet Free

www.btssolardesign.com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500.80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714.702.0151

Lic#854389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시요.

1. 문의 전전기세 고지서를 준비해주세요.
2. 전기세 고지서사진을 찍어서 Text Message 혹은 카톡 주세요.
3. 메세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시니어 전문 케어 메디컬 그룹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센터메디컬그룹과 함께 떠나는 여행

#1일무료관광

이번에는 +, 짝꿍과 함께 떠나는 무료 여행!

참여 대상

센터메디컬그룹 회원 이라면 OK!
센터메디컬그룹 회원의 짝꿍이라면 OK!
(65세 이상 시니어 ONLY!)

오렌지카운티 탄생지로~

OC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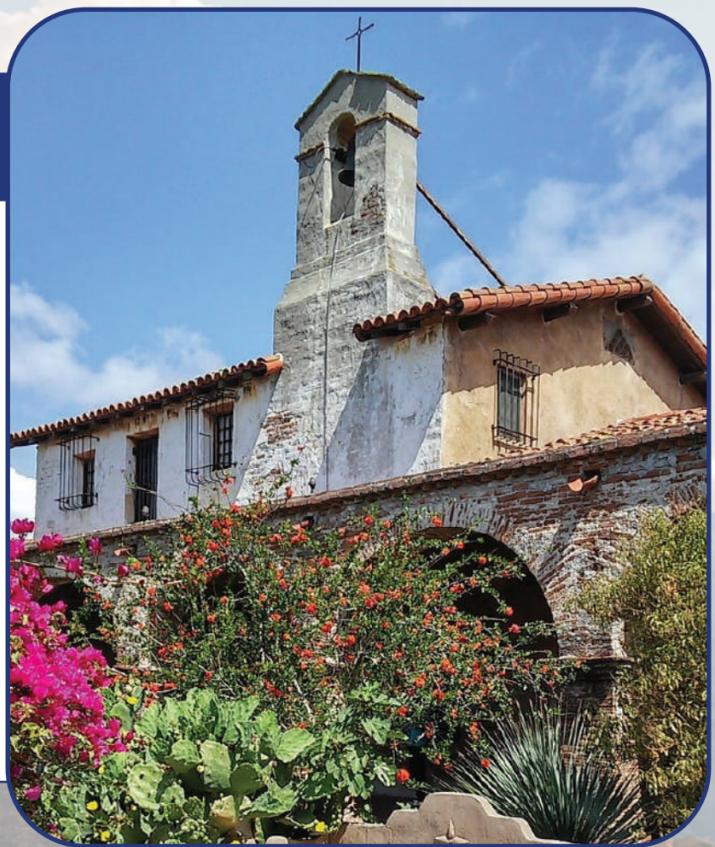
출발장소

센터메디컬 클리닉
가든그로브점
12372 Garden Grove Blvd, Unit B
Garden Grove, CA 92843

관광장소

미션 산 후안 카피스트라노

7월 30일 (화) 9am



캘리포니아의 유럽으로~

LA 출발

출발장소

삼호관광
2580 W Olympic Blvd LA, CA 90006

관광장소

게티 빌라

7월 31일 (수) 9am



총 2회 중 1회만 참여 가능합니다. *점심이 무료 제공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ID카드 지참하여 8:00am까지 출발장으로 와주세요.

신청문의

평일 오전 8시 - 오후 5시
(888) 847 - 3098



유기성 목사 “예수님과 동행, 개인 영성 아닌 공동체 영성”

「예수동행신학」 발간 기념 북 콘서트 개최

위드저스미니스트리(예수동행)와 도서출판 위드저스가 15일 저녁 서울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카페 타센에서 목회자·신학생·성도 총 60명을 대상으로 「예수동행신학」 발간 기념 북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유기성 목사(예수동행미니스트리 이사장)와 정성욱 교수(덴버신학교 조직신학)가 감사로 나섰다.

예수동행신학은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알고 가르치지만, 그분과의 인격적 만남과 친밀한 동행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사역에만 몰두하고 지쳐서 낙심하는 사역자들에게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친밀한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 시작된 「예수동행일기」 사역, 그 열매를 더 많은 교단과 교파에 속한 성도들과 나누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신학적인 연구의 결과물이다.

「예수동행신학」 출간, 예수동행 운동에 견고한 토대 놓는 작업

먼저, 「예수동행일기운동과 그 신학」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정성욱 교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11절을 봉독하며 “이 말씀은 예수동행일기운동의 목적과 부합한다. 간단히 말해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이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은 24시간 주님과 함께 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이어 “예수동행운동은 우리가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을 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것,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고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신 목적이며,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 동행일기를 쓰고, 그것을 나누는 방을 만든 것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듯이 권면 즉, 용기를 주는 것”이라며 “여기서 ‘피차’라는 말이 중요한데, 서로 서로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용기를 주라는 것”이라고 했다. 또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이다. 즉, 서로 세워주는 것”이라며 “예수동행일기운동은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열매와 결실로 나오는 삶이다. 물론 동행일기를 써 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써 감으로 주님과 동행했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잘 이루어 가길 바란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저는 2015년에 유기성 목사님을 통해 당시 영성일기(지금도 동행일기)를 추천 받았지만, 2016년부터 동행일기를 쓰기 시작해 8년간 계속해서 쓰고 있다”며 “8년간 쓰면서 주님과의 동행, 주님을 정말 좋아하게 되었다. 그 전엔 주님을 생각하면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동행일기를 쓰면서 주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 행복을 체험했다”고 고백했다.

아울러 예수동행일기운동에 대해 제언하기를 “먼저, 신학·이론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둘째로 구체화 작업과 실천화 작업도 필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예수동행신학」 출간은 예수동행운동에 견고한 토대를 놓는 작업”이라고 했다.

예수동행일기, 예수 그리스도와 친



유기성 목사가 강연을 하고 있다. ©SNS 페이스북 사진.

밀하게 동행하는 삶 위한 목회적 방법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성도들’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최근 영국기독교유적지를 방문했던 이야기를 전했다.

유 목사는 “이 천년의 기독교 역사라고 말하는 영국교회 가 있었던 일은 영국교회 안에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예수동행일기를 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교우들에게 분명히 경험하게 하기 위한 목회적인 방법”이라며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과 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교로서는 도무지 그렇게 살게 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할 수 있는가”라며 “일기를 서로 나누면서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을 확인·점검하고, 훈련하며, 모범을 보여 드리는 것 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예전에는 공동생활을 통해 가능했다면 이제는 전 성도가 공동생활을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인터넷을 개발시켜 놓으시고, 인터넷을 통해 교인들이 서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예수동행운동은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서만 나눌 문제가 아니라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5년 일찍 은퇴를 하고 예수동행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라며 “전에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애기했다면, 이제는 날마다 주님이 마음에 계심을 믿고 계속해서 주님을 생각하며 살다가 그것을 기록해보라고 말한다”고 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은 개인 영성이 아니라 공동체 영성이었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성도들이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는가.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혼자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 주님을 바라보고 수도원 생활을 하는 것이지 목사님처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라고 외치는 것은 다 사기꾼이라는 말

이 마음 아프게 들렸다”며 “개인적 관심사이기보다는 전적인 목회자적인 관점으로 성도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시켜주고 싶은 마음에 일기를 쓰면서 알게 된 것은 바로 공동체 영성”이라고 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솔직한 것이 아닌 나눔용 일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한다. 나눔용 일기는 공동체 영성이다. 흔히들 말하는 솔직한 일기 속에는 묘하게도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을 담아낸 글들이 많다”며 “우리가 담아내는 일기는 나의 생명·왕 되시는 주님, 내 마음과 생각까지도 철저히 주님께 검증 받아야 된다. 이것이 공동체 영성의 훈련”이라고 덧붙였다.

유 목사는 “일기가 한 편 기록되기까지 많은 기도과 성찰, 주님을 바라보는 과정을 거쳐 가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어떤 시험·실패도 허를 넘어가지 못한다”며 “대부분 동행일기를 쓰시는 분들은 이런 변화를 경험한다. 예수를 진짜 믿음으로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 개인의 영성의 영광과 공동체의 영광이 다르다. 한 사람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눈이 뜨이는 것은 개인적 회심이며 놀라운 일”이라며 “그런데 한 공동체가 다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한다”고 했다.

아울러 “신학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을 이미 다 포용하고 있다. 예수동행운동이 어떤 지경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신학적 검증을 통해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 신학적인 작업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출간된 책자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출간을 위해 노력한 교수님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장요한 기자

영국 성공회, 동성애 축복 반대 성직자 위한 ‘감독관’ 임명

영국 성공회 복음협의회(CEEC)는 양심상 이유로 동성애 축복도 입을 지지할 수 없는 성직자와 본당에 비공식적인 대체 영적 감독(ASO)을 제공하는 ‘감독관’ 그룹을 임명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이는 영국 성공회 총회가 동성 커플을 위한 독립적인 축복 예배 도입과 동성애자 성직자의 동성

애를 허가할 수 있는 움직임을 계속 추진하기로 투표한 데 따른 것이다.

CEEC는 “많은 성직자와 교회가 변화를 지지하는 주교들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밝혔다.

‘감독관’은 영국 전역과 다양한 복음주의 전통의 성직자로 구성된다. 처음 20명에는 명예 보조 주교가 포함되며 최근 런던의 올스울스 램프 플레이스에서 열린 예

배에서 위임됐다. CEEC는 “그들은 현재 적절하게 제공해야 할 감독을 잃은 사람들에게 영적 보살핌과 상담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옥스퍼드와 윈체스터의 명예 보조 주교인 헨리 스크리븐은 위임받은 사람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영국 성공회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가능하게 해

준 CEEC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다른 감독자로는 블랙번의 전 주교인 줄리안 헨더슨, 윌레스턴의 전 주교인 피트 브로드벤트, 메이드스톤의 전 주교인 로드 토마스가 있다.

이미경 기자



영국성공회 총회. ©영국성공회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에스더 이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기(氣)의 제왕” 영양칠보석



“병명없이, 이유없이 아픈 분들” 에게
인체 약 150여군데에 자연의 기에너지파동을 넣어줍니다.

- 자연이 만든 세계 최고의 기발산석 영양칠보석
- 세계가 인정한 우리 고유의 돌입니다.
- 기와 원직외선이 옥의 약 250배
- 맥반석, 게르마늄의 약 150배
- 황토의 200배



영양칠보석 건강에 최고



칠보석 매트(1인용)



칠보석 매트(2인용)

*교통사고 환자분에게는 특히 최고입니다

- 병원에 가도 병명없이 아프거나 기운이 없는 분
 - 어깨가 결리고 다리에 쥐가 나거나 저리신 분
 -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항상 피곤하신 분, 피곤한 수험생, 직장인 및 고령자 분
 - 혈액순환 장애로 아침에 항상 몸이 천근만근 무거우신 분
- 이런 분들께 효과가 있습니다.

*오목세트(목걸이1, 팔찌2, 발찌2)를 사용하시면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원석 (3인용) 소파방석



세라믹 (3인용) 소파방석



세라믹 (1인용) 소파방석



원석 (1인용) 소파방석



영양칠보석 건강센터

952 S Western Ave #110, Los Angeles, CA 90006

213.663.8052

“북한 강제노동, 심각한 인권 침해 우려”

서울유엔인권사무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한 강제노동’ 발간 행사 개최

서울유엔인권사무소(소장 제임스 히난)가 16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신 보고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의한 강제노동’ 발간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엘레노어 페르난데즈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 인권관이 대표해서 발표했다.

유엔인권사무소는 “오늘 발간한 보고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강제노동 제도가 한층 더 고착화되었으며 여러 심각한 인권 우려를 낳는다”고 했다.

이어 “보고서에는 해당국을 탈출하여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인 강제노동 피해자 및 증인과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한 183건의 면담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볼커 튀르크 유엔인권최고대표의 말에 따르면 “보고서에 담긴 진술내용을 통해 강제노동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고통이 규모 면에서나, 폭력 및 비인도적 대우의 수위 면에서나 얼마나 충격적이고 비참하진 알 수 있다”며 “이들은 견디기 힘든 환경에서 일할 것을 강요받

는데, 심지어 급여나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고, 일을 그만둘 수 없으며 보호·의료 조치나 휴식 시간도 제공되지 않고, 식량이나 쉴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위협부른 노동을 도맡는 일이 빈번하다. 지속적인 감시 하에 놓이고 구타는 예사로 당하는 한편, 여성은 계속해서 성폭력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더불어 “피해자들은 ‘일일 할당량을 맞추지 못하면 맛있다. 밤도 적게 준다’, ‘아는 언니가 작업반 반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힘들어 했다’는 등 진술했다”고 했다.

그리고 “보고서는 여섯 가지의 강제노동 유형을 살핀다. 구금 시설 내 노동, 국가가 강제로 배정한 직장, 군 징집, 혁명 ‘돌격대’의 활용, 작업 동원,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로 파견한 이들이 수행한 노동”이라고 했다. 또 “해당국 국민이 국민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광범위하고 여러 층위에 걸친 강제노동 제도를 통한 통제 속에 착취당한다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한 강제노동’ 발간 행사가 16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됐다. © 기독교일보

결론내린다”며 “해당 제도가 국민을 통제 및 감시하며 사상을 주입하는 수단”이라고 했다.

특히 “구금 시설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 해당 시설에 강제노동 피해자는 신체적 폭력의 위협과 비인도적 환경 속에서 체계적으로 노동을 강요받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구금된 민간인을 거의 완전히 통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의 교도소 내 강제노동의 광범위한 착취는 일부 경우 사실상 개인에 대한 소유의 수준에 이를 수 있으며, 이는 반인도범죄로서의 노예화의 특성이기도 하다고 보고서는 말한다”고 했다. 아울러 “학교교육이나 군 복무를 마친 모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은 국가에 의해 직장에 배정되고, 이는 곧 국민의 거주지를 결정짓기도 한다”며 “보고서에 묘사된 것

처럼 일자리를 선택할 자유가 없고, 노동조합을 구성할 수 없으며, 직장에 나가지 않을 경우 구금될 위협에 놓이고, 급여가 계속해서 미지급되는 형태는 해당국 내 제도화된 강제노동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후에는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질의응답 순서에선 서울유엔인권사무소 제임스 히난 소장이 온라인 줌을 통해 답변했다. **장요한 기자**

“북한 체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성경”

김건희 여사,美서 탈북민 등 만나 북한인권 의견 나뉘 "대한민국 정부는 고통 받는 북한 주민 결코 외면치 않을 것"

김건희 여사가 현지 시간 11일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 회의실에서 북한 억류 피해자와 유족, 북한인권 개선 활동 중인 탈북민, 북한 전문가 등을 만나 북한의

인권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대통령실이 이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김 여사는 작년 4월 미국 국민 방문 때도 북한 전문가와 탈북민들을 만나 북한인

권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김 여사는 인사말을 통해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지속적인 만남을 갖는 것이 큰 의미가 있으며, 최근 북한이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중학생 30여 명을 공개 처형했다는 보도는 북한의 잔혹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먼저 김 여사는 북한의 인권 실상을 체험했던 탈북민 및 미국인 억류 피해자의 사연과 참석자들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 현황 및 정책 제언을 경청했다.

1년여 만에 두 번째로 만난 오토 웬비어의 어머니 신디 웬비어는 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목걸이를 늘 하고 다닌다며 “해당 목걸이는 오토의 고교시절 공예 선생님이 디자인한 것”이라며 “김 여사께서 오토를 항상 기억해줘서 너무 감사하며, 오토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내가 없었을 것”이라며 김 여사에게 목걸이를 선물하기도 했다.

북한인권운동가인 수잔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북한 체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성경(Bible)”이라고 말했고, 탈북민 지한나 씨는 성경을 공부했다는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에 갇던 자신의 경험을 전했다.

작년에 가족들과 목선을 타고 탈북한 김이혁 씨는 “한국과 북한이 다른 점은 발언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한국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꿈이 있는 곳”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김 여사와 참석자들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며 공감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행보에서 한국 정부의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이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향한 희망을 갖는 등대”가 된다고 호평하고, 영부인이 진정성 있고 꾸준

하게 북한인권에 관심을 갖고 격려하는 행보가 무엇보다 큰 힘이 된다고 감사 표했다. 김 여사는 탈북민들의 증언을 들으며 “탈북민 여러분의 존재는 그 자체로 열악한 북한인권 현실에 대한 증언이자 동시에 자유를 향한 희망의 등불”이라며 “여러분의 용기 있는 행동이 앞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정부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여사는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북한인권 개선에 강한 의지가 있으며, 고통받는 북한 주민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민간단체와 활동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의 목소리가 더욱 크고 단단해지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참석자들은 지난달 한국 정부가 발간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했다. **김진영 기자**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가운데, 11일 미국 워싱턴 D.C. 민주주의진흥재단(NED) 회의실에서 북한인권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혹사 당하는 눈!”

너무 많은 눈 영양제 과연 어떤 것이 좋을까?

01

눈 건강 루테인지아잔틴

\$17.90 ▶ \$14.90

50대 이상 : 노화로 인한 눈 건강문제(황반변성)를 지키기 위해서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함유된 영양제를 추천합니다. 루테인은 자외선을 차단해 망막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02

눈 건강 루테인 밀크씨슬

\$17.90 ▶ \$14.90

40~50대: 눈 보호와 함께 과한 업무로 누적된 '간' 건강도 신경 써야 하는 분들에게는 눈에 좋은 루테인과 간에 좋은 밀크씨슬이 함유된 '루테인 밀크씨슬'을 추천합니다.

03

눈 건강 루테인 알티지 오메가3

\$18.90 ▶ \$15.90

20~30대 직장인: 직장업무에서 컴퓨터, 휴대폰 등의 사용량이 많고 눈이 혹사되어 피곤한데도 눈이 쉬 수 없는 상황에 놓은 분께는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A, 비타민E가 함유된 영양제가 좋습니다. 특히, 안구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루테인 알티지 오메가3'를 추천합니다.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 : 연령, 안구상태(안구건조증), 생활
(눈 질환이 있는 경우는 의사에게 상담 받을 것을 권합니다)

J1 MARTH
Healthy Life

판매처
PRO-Z USA, Inc
T.(213)278-3250

SCAN ME

“터키, 예배 공간 신청한 교회 요청 거부... 기독교 탄압”



디아라바키르 개신교 교회 재단. ©ADF International

터키 남동부 주요 도시 중 한 곳에서 개신교 신자들을 위해 2019년 설립된 디아라바키르 개신교 교회 재단은 새로운 예배 센터를 건설하기 위해 종교 건물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부로부터 공공연한 차별을 받고 있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디아라바키르 교회에서 100명 이상의 개신교 신자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이 교회는 회중을 수용하기 위해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반복적인 요청에도 당국은 그러한 요청을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거부하고 있다고 법률단체 자유수호연맹(ADF)가 전했다.

이 단체의 세계종교자유 옹호 책임자인 켈시 조르지는 “문제의 토지는 종교 용도로 특별히 지정되었지만, 정부는 교회가 국가에서 선호하는 종교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차별하고 있다”라며 “체계적이고 관료적인 박해는 종교 자유에 대한 기본적 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터키의 국제적 인권 의무도 위반한다. 차별은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ADF의 지원을 받는 재단은 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법원은 기존

도시 계획법에 따라 새로운 종교 시설을 설립하는 것을 방해하는 우려스러운 판결을 내렸다. 국제 ADF의 터키 수석 변호사인 오르한 케말 쟁기즈는 이 상황을 가장 기본적인 인권 중 하나인 종교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묘사하면서 “기독교인들은 터키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예배 장소를 설립하고자 할 때 수많은 법적, 실질적 장벽에 직면한다”라고 말했다.

CP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은 터키의 종교 차별 패턴의 일환으로 터키 정부의 이슬람화와 민족주의가 심화되면서 기독교인들에게 상당한 장벽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약 8천3백만 명의 인구를 가진 터키는 주로 무슬림이 대다수이며 기독교인은 약 17만 명이다. 법적, 관료적 장애물은 기독교인에게 흔한 도전이 되었고, 종종 그들의 권리와 자유가 제한되었다. 185명의 외국 개신교 목사가 2018년 이후 국가 안보를 구실로 터키에서 추방됐다. 추방에는 종종 N-82와 같은 모호한 보안 코드가 포함되며, 공공 질서에 위협이 되는 개인을 차단하는 데 사용된다.

앞서 지난 6월 터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외국 기독교인 노동자 추방을 지지했다. 이미경 기자

“아프리카 교회에 만연한 거짓 복음”

아프리카 미전도종족 전도 사역자인 오스카 아마에치나(Oscar Amaechina)가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아프리카 교회의 거짓 복음”이라는 칼럼을 게재하며 변영 복음에 대해 경고했다.

오스카 아마에치나 목사는 나이지리아 아부자에 위치한 ‘아프리카미션&복음주의네트워크’(Afri-Mission and Evangelism Network, AMEN)의 회장이다. 아마에치나는 칼럼에서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 아프리카인들은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이었다. 기독교가 들어오자 그들은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원래 기독교는 사후에 개인적인 구원을 약속했고, 그 당시 그리스도에게 온 모든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을 고대했다”고 말했다.

또한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은 가족을 떠나 집의 안락함과 고국의 모든 사치품을 포기하고,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아프리카인들에게 다가서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고 했다. 그는 “아프리카 기독교인들의 첫 세대는 초기 선교사들에 의해 전달된 사명감을 받았다”며 “1857년, 선교 여행을 위해 시에라리온을 떠나 나이지리아 남동부의 오니차로 간 이그보족 노예인 존 크리스토퍼 테일러(John Christopher Taylor) 목사는 모든 아프리카 기독교인에게 함께 모여 은수그베 주민들을 구원할 것을 촉구했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부르심은 최초의 선교사들이 나이지리아에 도착했을 때 이루어졌으며, 그 때 성경 복음이 처음 전파되고 믿어졌다. 존 크리스토퍼 목사는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고통과 핍박과 좌절 속에서 수고하며, 은수그베 주민들을 그리스도의 구원의 지식으로 인도하기 위해 애썼다”며 “복음 전체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러한 추세는 수세기 동안 이어졌고, 그 결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된 기독교인들이 제자로 생겨났다”고 했다.

아마에치나는 “번영 복음(Prosperity Gospel)은 이후 미국에서 아프리카로 퍼졌으며, 오순절과 복음주의 교단에 침투했다. 가난, 인간 타락, 악한 통치와 부패와 같은 문제에서 벗어나려는 수많은 아프리카 예배자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약속하는 내용이었으며, 이는 오늘날에 정통 교회에서도 번성하고 있다”며 “신약학자인 고든 피(Gordon Fee)는 번영 복음을 ‘복음의 성격이 거의 사라진 음흉한 질병’으로 묘사했다”고 했다. 그는 “이 질병은 현재 특정 요인들로 인해 아프리카 교회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예배자들은 매우 가난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데, 번영 복음은 그들이 가진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므로써 그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한다”며 “빈곤에서 벗어나려는 예배자들은 이러한 교회들에게 아낌없이 기부했지만 그 과정에서 더욱 가난해졌다. 나이지리아에서는 교회에 가서 받은 많은 가짜 약속이 실현되지 않자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고 했다.

또한 “번영 복음이 아프리카에서 매우 인기가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나이지리아의 대다수 대형 교회들은 번영 복음 설교자들이 소유하고 있다”며 “이 설교자들의 아우라와 지적 능력, 웅변 능력과 카리스마는 확실하며, 그들의 주장은 거의 무적에 가깝게 보인다”고 묘사했다.

그는 이러한 교회 지도자들이 “아프리카 종교와 전통이 다산과 풍요, 부와 같은 축복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축복의 징후로 인정하면서, 아프리카의 세계관을 자신들의 설교에 접목하는 데 성공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여 그들의 기독교 신앙이 손상되었다”고 지적했다. 강해진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평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회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00 (내세대에 오전 9:15)
3부예배(새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회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2세대)을 섬기며, 선교를 영감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일공부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0:50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현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 새을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분당 CMC 중보기도회 오전 11:30 교육관 4층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분당 CMC소방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C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수요중보기도회 오전 10:00 분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466-1234 Email: omcco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삼위일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영아) 오전 10: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 3부예배(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중보기도회 오후 2:00

김재연 담임목사

영생교회

1829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2-735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일새벽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교회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경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티노 오후 5:0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학교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 새벽예배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 (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대학청년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한현종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화요기도회 오전 10: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7:00

김상현 담임목사

한인필그림교회

2518 W. Grand Ave. Alhambra, CA 91801
T. (626)570-1610 (교회), (714)853-4030(담임목사)

주일 오전 10:00 허튼교회
4500 W. El Segundo Hawthorne, CA 90250
Tel. 310-706-7721

진건호 담임목사

주일 오후 1:00 가든그로브한인교회
13411 S. Euclid St, Garden Grove, CA 92843

주일 오후 7:00 웨스턴교회
439 S. Western Ave, LA, CA 90020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블러시(Calling), 고치(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hyun.org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M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유.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항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cs.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할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주일예배 오후 1:00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8 S Vermont Ave #214, Harbor City, CA 90710
T. (310) 905-2228 / newchurchdtdla.com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트럼프 전 대통령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 분 말씀 들으십시오”



잭 히브스 목사. ©YouTube/Real Life with Jack Hibbs

미국의 한 대형교회 목사가 지난 13일 (이하 현지시간) 발생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릎을 꿇고 주님을 진정으로 알고자 하라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남부 캘리포니아 갈보리 채플 치노힐스의 담임인 잭 히브스 목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음 자문 위원이기도 했다. 그는 주일설교에서 “대통령님, 지금 이것을 보고 있다면, 오른쪽 귀가 피를 흘리고 있을 것이다. 총에 맞은 건 눈이 아니었다. 총에 맞은 건 코가 아니었다. 총에 맞을 예정이었던 건 관자놀이였다. 당신의 귀는 (총에) 맞았지만, 당신이 하나님께 보호해주셨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했다.

베스트 크리스천 펠로우십 담임 그렉 로리 목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음주의 자문 위원회 위원을 지낸 바 있다. 그는 CP에 보낸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새롭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암살 시도가 그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한 것과 비슷한 방식이라고 했다.

로리 목사는 “우리는 종종 누군가 ‘총알을 피하는’ 것에 대해 말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이것이 현실이 되었다. 우리는 그의 생존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완전한 회복을 기도한다. 암살자의 총알로부터 가족을 보호하다 사망한 코리 폼페라토레 가족에게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대통령님?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수년 동안 그것을 들었다. 무릎을 꿇을 때”라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며, 그 분이 인간의 일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말할 때다. 그분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그분은 모든 사람이 와서 영과 진리로 그를 경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알게 되시라. 그것은 세상에서 모든 차이를 만든다”라고 당부했다.

로리 목사는 “코리는 영웅적인 남편이자 아버지이자 소방관이었고, 정기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를 사랑했다. 말할 것도 없이 가족을 사랑했다. 우리는 중상을 입은 두 사람의 빠른 치유와 이 무의미한 정치적 폭력 행위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있길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존재적 위협’으로 낙인찍고 히틀러와 비교하는 것은 멈춰야 한다. 선동적인 수사를 줄이고 미국인이 투표함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11월 대선을 염두에 두고 언급했다.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에 소재한 하

이미경 기자

미국 기독교인 3명 중 1명 “AI 설교, 인간 대체할 수도”

미국의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인의 약 3명 중 1명(32%)은 인공지능(AI)이 설교 작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 인간보다 더 뛰어나거나 동등하다고 보았다.

이 연구 결과는 댈러스 소재의 기독교 전문 리서치 기관인 ‘바나그룹’(Barna Group)과 신앙과 접목된 기술 플랫폼인 ‘글루’(Gloo)에 의해 지난 9일(현지 시간) 공개됐다.

며, 어떤 작업을 인간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였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영적 상담(86%)과 정신 건강 상담(84%)에서 인간보다 더 선호했다. 그러나 AI는 계획 및 일정 관리 등 행정 업무에서 인간보다 더 높은 지지(67%)를 얻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3%)은 AI가 음악 선곡표를 구성하는 작업에서 인간보다 더 뛰어나거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독교인의 절반(50%)은 교회 예산에 관한 조인 능력에서 AI가 더 뛰어나거나 동등하다고 답했다.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에 따르면, 설문 조사는 5월 21일부터 31일까지 미국 성인 기독교인 656명과 성인 비기독교인 1072명의 응답을 분석했다.

연구진은 데이터 수집을 위해 온라인 패널을 사용하고 무작위 표본 추출 방법을 적용했다. 글루의 인공지능 책임자 스티븐 빌링스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적 가치에 맞춰 AI를 언제 어디서 사용할지 탐색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성인 기독교인들이 개인적인 손길이 필요한 사역 업무는 인간이 해야 한다고 믿는 것은 놀랍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성인 비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거의 절반(44%)이 AI가 생성한 문학 작품을 지지했으며, 젊은 세대(61%)는 AI가 예술, 음악, 스토리텔링 분야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바나의 수석 연구원 애슐리 에크메이는 “이 연구는 사람들이 윤리적 고려사항에서부터 더 높은 AI 사용 역량을 원하는 열망까지, 기술 참여 방법에서 점진적이며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AI가 계속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이 AI의 영향력에 대해 점점 더 고심하고 있다는 징후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하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넘어 AI 사용에 대해 낙관적이라는 점은 대부분의 사역 지도자들에게 놀라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사 결과, 특정 업무를 기독교인과 인공지능 중 누가 더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기독교인들이 받은 질문은 “AI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작업은 무엇이

방법을 연구하는 IT 전문가들을 위한 제2회 연례 행사 ‘AI와 교회 해커톤’(AI & the Church Hackathon)을 준비 중이다. 이 행사는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콜로라도 볼더에서 열리며, 팻 겔싱어 인텔 CEO와 바비 그루엔왈드 유버전 CEO 등 저명한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미경 기자

오렌지카운티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C(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투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골 4: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home.org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가든구주재: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주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여대대학원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인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A)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삼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 오전 9:3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아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민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여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신웅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스리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후 6:00(월-금)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6: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명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감반은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6: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여성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월-토) 새벽 5:30
(평신도교우부) (토/주일) 새벽 6:00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ve) 오전 9:40 금요영성집회 저녁 7:30(금)

우영화 담임목사

LA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a,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친생명 단체가 테러 집단? 美 육군 기지 PPT 논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소재의 포트 리버티(Fort Liberty) 육군 기지에서 사용된 훈련용 프레젠테이션이 최근 소셜 미디어에 유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해당 프레젠테이션은 친생명 단체를 '테러리스트 그룹'으로 지칭하고, 생명 존중 변호관을 차량에 단 사람들을 잠재적 위협으로 강조하고 있다. 테러리스트 그룹에는 친생명 단체인 전국생명권리위원회(National Right to Life Committee, NRLC)와 오퍼레이션레스큐(Operation Rescue)가 포함되어 있다.

이 슬라이드는 낙태 시설 밖에서 여성들을 상담하고 '생명을 선택하라'(Choose Life)라는 변호관을 부착하는 등의 활동도 위협 행위로 간주했다. 그러나 이 변호관은 예기치 않은 임신 한 여성들을 무료로 돕는 임신 보호 센터의 기금 모금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구출'이라는 제목의 테러 전술을 강조한 슬라이드에는 길거리나 임신 센터에서의 상담 활동이 포함되어 있어, 합법적인 낙태 반대 활동과 불법 활동을 구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로 친생명 운동가들이 낙태 시설 안에 있는 여성들에게 임신 지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을 하는 친생명 운동가들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떠나거나 시위를 벌이는데, 이는 대개 체포로 이어진다.

슬라이드는 또한 모든 나열된 행동들이 낙태 시설을 폭파하거나 낙태 종사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임을 암시했다.

캐럴 토비아스 NRLC 회장은 12일 성명에서 이 프레젠테이션이 "태아 생명을 옹호하는 미국인들에게 매우 모욕적"이

라며, 친생명 단체에 대한 "완전히 거짓된 사실은 게으른 학문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토비아스 회장은 "50년 이상의 역사 동안, 전국생명권리위원회는 늘 폭력을 일관되고 명확하게 규탄해 왔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태아 사망을 장려하고 무제한 낙태를 옹호하지만, 평화로운 친생명 미국인들에게는 '테러범'이라는 꼬리표가 붙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가 헌법적 권리가 아님을 명시한 판결문이 유출된 후, 급진적인 낙태 지지 운동가들이 임신 지원 센터를 파괴하거나 방화하는 사건이 수차례 발생했다. 이들 중 일부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기소되지 않은 용의자들이 남아 있어, 바이든 행정부 및 법무부의 편향된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복음주의 단체인 가족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의 토니 퍼킨스 회장은 육군 기지 논란에 대해 "경악스러울 정도"라고 밝혔다.

퍼킨스 회장은 최근 엑스(X)에 "태아 생명을 지지하고,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평화롭게 옹호하며, 태아 살인을 막으려는 것이 테러리스트를 만드는가?"라며 이사야서 5장 20절을 인용하여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을 화 있을진저"라고 경고했다. 포트 리버티는 같은 날 성명에서 논란이 된 PPT가 XVIII 공수군단, 포트 리버티, 미 육군 또는 국방부의 견해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한 이 슬라이드가 브리핑 전에 적절한 승인 당국에 의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유진 기자

美 버지니아,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 "건강한 환경 위해"



©freestocks/ Unsplash.com

글렌 영킨 미국 버지니아 주지사가 정신 건강 문제를 이유로 공립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규칙 초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9일 발표된 행정명령 33호는 버지니아 교육부에 '휴대전화 없는 공립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침을 내리도록 지시했다. 이 명령은 "버지니아의 K-12 공립학교에서 휴대전화 없는 교육을 시행할 필요성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며 "휴대전화 없는 교육은 학생들이 부모의 감독 없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시간을 크게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이들은 소셜 미디어에 하루 평균 4.8시간을 소비하는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에 하루 3시간 이상을 보내면 청소년의 정신 건강 악화 위험이 두 배로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립학교 교실에서 스마트폰 사용 금지는 교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기대와 조치"가 이뤄졌다. 명령은 "이 문제는 단순한 주의 산만함을 넘어선다"며 "과도한 휴대전화 및 소셜 미디어 사용은 청소년의 집중력과 학업 참여 능력에 누적되고 지속적이며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영킨 주지사는 9일 성명에서 이 명령에 대해 "모든 아이들이 자유롭게 배울 수 있는 보다 건강하고 집중적인 교육 환경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킨은 "오늘의 행정명령은 학생들에게 중독성 있는 휴대전화와 소셜 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을 제한해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교실에서 명백한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데 분명한 목표를 둔다"며 "지역 차원에서 이 정책과 절차를 설계하고 시행하도록 학부모, 학생, 교사, 학교 및 지역사회 지도자들 간의 활발한 대화를 시작하게 한다"고 전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성년자에게 광범위한 스마트폰 사용과 다양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 노출이 초래하는 해악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에든버러대학교의 글로벌 공중보건학과 학과장인 데비 스리다르 교수는 최근 가디언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장시간 동안의 화면 사용과 특정 소셜 미디어 경험이 특히 어린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점점 더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스리다르는 "전문가들은 2010년부터 청소년 우울증과 불안 증가에 있어 스마트폰의 역할에 대해 논의해 왔다"며 "팬데믹으로 인해 정신 건강 문제 발생률이 가속화되었지만, 이러한 추세는 거의 10년 전부터 명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는 내년부터 수업 시간 동안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김유진 기자

주일에 오전 11:0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예배 오후 7:30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구경모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침례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월)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622-2324, F. (909)622-1480/inlandchurch.org

안 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00 4부예배 오후 7:30

금요일기도회(화-금)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4부예배 오후 1:30 5부예배(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591-6500 sunhanchurch.com

고태형 담임목사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1부 07:30AM - 1부 09:00AM - 광일(월-금) 05:00AM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일 06:00AM

-3부 11:00AM

글로벌선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김지성 담임목사

대예배 11:00 AM Youth (6th - 12th) 11:00 AM

아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일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아부 (24개월 이하) 11:00 AM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들뜸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장수영 담임목사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 2부 오후 12:30 EM 오후 12:30 사랑부 오전 11:00

JCCC Academy 오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오전 11:00 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아기베풀) 오전 11:00 영아부(베베풀) 오전 11:00 수요일기도회 7:30PM

새벽기도회 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나성복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유경재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손창민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대학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예수동행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ilovejccc.com

안정섭 담임목사

주일 1부 8:00AM 주일 2부 9:30AM/11:15A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곽덕근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9:30 금요일(영양) 오후 7:3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EM예배 (1부)오전 9:00 EM예배 (2부)오전 11:0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오명찬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일 저녁 7:45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OC예배 9:00-10:00 AM 수요일 저녁 7: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200M) 6801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1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최혁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화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Newhall, CA 913211 Tel. (661)219-5434 www.sammoor.org

이건창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새벽 오전 5:30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지동근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박성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3225 S Rainbow Blvd #200, Las Vegas, NV 89146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임인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 10:15 (한국어, 스페리쉬) 주일예배 3부 오후 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강일진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침례 오후 7: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7:00 E.lkccchurch@gmail.com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이정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6985 W Sahara Ave, Las Vegas, NV 89117 T. (702) 378-9828

송삼용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화-토) 새벽 5:30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6827 W Tropicana Ave #130, Las Vegas, NV 89103 T. (702) 742-3324 / thinkhappychurch.org

정공필 담임목사

주일날예배 오전 11:00(설교 동시통역) 주일저녁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fho@hotmail.com

조응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6: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제일침례교회

2625 Westwind Rd, Las Vegas, NV 89146 T. (702) 331-5026

이병걸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영어 동시통역) 화요일침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라스베가스 은혜와 사랑의 교회

2580 Montessori St. #107, Las Vegas, NV 89117 T. (702) 539-6348

박은호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일예배 7:00 PM 새벽기도 화-토 5:50 AM

라스베가스 우리종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 woorioeunchurch.com

임명진 담임목사

크리스천 비즈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23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데저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아시아미용기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베르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media.com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고기, 김치만두, 찜쌀, 오박편, 솔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Innervis NUTRITION

건강을 선물하세요

부모님 선물로 딱이네~

- 기억력 개선
- 피로 회복
- 면역력 강화
- 혈액순환 개선
- 항산화 작용

5. **비타민 D3 5,000 IU**
120 캡슐을 함유 \$8.80
D3 5000 IU 선사한 비타민 D3는 햇빛을 보지 않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비타민D 결핍을 보충해 줍니다.

6. **비타민 C500**
180 캡슐을 함유 \$11.99
당신의 건강과 부티를 위한 필수 영양소! 필수영양소 비타민C와 갈슘, 그리고 노화 방지 피부 개선 항바이러스 등의 효능을 가진 로즈힙까지 함유된 제품입니다.

9. **면역력**
120 타블렛 \$11.99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로즈힙을 사용하여 제조된 강력한 면역력 개선 제품입니다. 신체 면역체계의 다양한 세포 기능을 지원해 줌으로써 면역력을 기르는데 기여하여 줍니다.

전화구매 213-434-1170



[부고]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서정이 목사 별세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24대 회장이며, 증경회장인 서정이 목사(향년 82세)를 일기로 2024년 7월 14일 오후 10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장례예배 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최영봉 목사)는 협의회장으로 천국환송예배를 드린다고 밝혔다. 천국환송예배는 2024년 7월 22일(월) 오전 11시이며, 장소는 한국장외사(2025 W. Washington Blvd. LA, CA 90018)이다. 문의: 최영하 목사 (총무.213-999-1923)

극단 이즈키엘 '알렉시스의 크리스마스'

12월 20일~22일(금~토)
반스달 극장

극단 이즈키엘이 2024년 연말 크리스마스를 맞아 가족 뮤지컬 '알렉시스의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다. 공연까지 약 5개월 남은 시점에서 주요 배역의 캐스팅이 완료되었고, 본격적인 리허설에 돌입했다.

지난해 10주년 기념 공연 '마흔 인형'과 할리우드 프린지 연극 페스티벌 화제작 '카텐자'를 선보인 이즈키엘 극단은 크리스마스의 본래 의미를 되찾고, 예수님의 탄생에 담겨진 구원의 메시지를 가족과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있고 화려하게 구성한 뮤지컬 '알렉시스의 크리스마스'를 12월에 선보인다.

작곡은 이즈키엘의 히트 뮤지컬 '마루마을'의 황아름 작곡가가 맡았고, 최원현 뮤지컬 배우(뮤지컬 '도산'의 안창호 역)와 디즈니랜드 파크 뮤지컬에서 물란 역할을 맡았던 한예랑 뮤지컬 배우 등 뛰어난 배우들이 주연으로 무대를 빛낼 예정이다. 현재 앙상블과 조연 배우들의 캐스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알렉시스의 크리스마스. ©ezekiel.la

이 공연은 벌문과 헬리웃에 위치한 반스달 극장에서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열리며, 현재 광고주도 모집 중이다.

2013년 창단된 이즈키엘은 그동안 기독교적 내용을 담은 '청년 예수' '마루마을' '살로메' '문' '포물라3' '카텐자' 등 각종 공연을 펼치며 모든 공연 수익은 기독교 관련 사역에 기부해 왔다.

문의는 전화: 213-200-0021나 이메일 ezekieldrama@gmail.com으로 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가든그로브 시니어 '마당잔치' 성황!

센터메디컬그룹이 준비한 '가든그로브 마당잔치'가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7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센터메디컬클리닉 가든그로브지점 직영클리닉, 센터메디컬클리닉 주차장에서 열린 '마당잔치'에서 게임부스와 다양한 체험, 무료 진료와 무료 식사, 무료 미용, 경품들이 제공되어 즐거운 시간을 보낸 시니어들은 행사를 준비한 센터메디컬측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였다.

이 마당 잔치는 가든그로브와 주변 지역 (가든그로브, 산타아나, 스탠폰, 웨스트민스터)의 만 65세 이상의 시니어라면 무료로 참여, 예약도 필요 없이 어르신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그대로 돌려드리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또한 임유일 내과 전문의가 진료및 건강에 관한 질문을 꼼꼼하게 답변해 주는 것에 시니어들이 감동받았다는 후문이다.

센터메디컬그룹의 창립 10주년 기념 혜택과 행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예정이다.

7월말에는 무료 1일 관광 및 계속되는 콘서트 공연을 기획하고 있다. 이는 센터메디컬그룹이 10주년을

센터메디컬그룹

무료 잔치 참여하고 선물도 받으세요!

시니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가든그로브 마당잔치

센터메디컬클리닉 가든그로브지점 주차장
(12372 Garden Grove Blvd unit B, Garden Grove, CA 92843)
7월 18일 목요일 10am - 1pm
문의전화 (714) 583 - 8569

가든 그로브 마당잔치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센터메디컬

기념하여 풍성한 2024년을 보내기 위함이기도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더욱더 발전하는 메디컬이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더 많은 혜택들이 궁금하다면 센터메디컬그룹으로 문의하면 된다. (888-847-3098). 김민선 기자

제9회 PGM 선교사 집중 훈련

세계전문인선교회(PGM, Professionals for Global Missions)가 주최하는 선교사 집중 훈련 프로그램이 8월 19일(월)부터 9월 6일(금)까지 매주 월, 화, 목, 금 오후 4시~오후 7시 까지(미 서부시간) 줌(Zoom)과 유튜브 영상 강의를 통해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선교 헌신자들을 발굴하며 PGM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함이며, 참가자들은 3주간 집중훈련을 수료한 후 1년간 인턴선교사로 OJT(직장 내 교육훈련)을 받고, PGM 선교사로 파송된다.

훈련 대상은 스포츠, 의료, 미용, 캠퍼스, 영상, 어린이, VBS, 청소년, 공회, 건축사역 등의 전문인선교사이며, 훈련 첫 날인 8월 19일(월) 오후 4시에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일정이 시작되며, 이어서 고대은 목사가 PGM을 소개하고, 호성기 목사의 '선교의 제4 물결', 김영민 목사의 '디아스포라', 양충연 목사의 '히스패닉 사역' 강의가 이어진다.

등록비는 개인 당 50 달러이며,

2024년 제9회 PGM선교사집중훈련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구체적인 헌신을 기다리는 선교헌신자들을 발굴하여 PGM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한 선교사집중훈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강사진

호성기 목사 PGM 대표이사 총무(미국, 한국, 호주)	고대은 목사 PGM 대표이사 총무(미국, 한국, 호주)	김영민 선교사 PGM 대표이사 총무(미국, 한국, 호주)	이영민 선교사 PGM 대표이사 총무(미국, 한국, 호주)	박성수 선교사 PGM 대표이사 총무(미국, 한국, 호주)
김충현 목사 PGM 대표이사 총무(미국, 한국, 호주)	김정호 목사 PGM 대표이사 총무(미국, 한국, 호주)	양충연 목사 PGM 대표이사 총무(미국, 한국, 호주)	최영하 목사 PGM 대표이사 총무(미국, 한국, 호주)	Jay Kim 선교사 PGM 대표이사 총무(미국, 한국, 호주)
김현우 목사 PGM 대표이사 총무(미국, 한국, 호주)	이현우 목사 PGM 대표이사 총무(미국, 한국, 호주)	이영민 선교사 PGM 대표이사 총무(미국, 한국, 호주)	양충연 선교사 PGM 대표이사 총무(미국, 한국, 호주)	양충연 선교사 PGM 대표이사 총무(미국, 한국, 호주)
김재이 목사 PGM 대표이사 총무(미국, 한국, 호주)	김수진 선교사 PGM 대표이사 총무(미국, 한국, 호주)	김희준 목사 PGM 대표이사 총무(미국, 한국, 호주)	박지은 선교사 PGM 대표이사 총무(미국, 한국, 호주)	

세계전문인선교회(PGM)가 주최하는 선교사 집중 훈련 프로그램이 8월 19일(월)부터 9월 6일(금)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pgmusa.org

등록 마감은 7월 31일이다. 지원을 위해서는 홈페이지(pgmusa.org)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추천서를 이메일(admin@pgmusa.org)이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훈련문의는 admin@pgmusa.org로 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백종근 칼럼

‘하위럼 선교사 조선 선교행전’ (1)

백종근 목사의 저서 『예수와 함께 조선을 걷다』는 1896년 남장로교 선교사로 조선에 파송되어 전주와 군산 그리고 목포를 비롯한 호남지역에서 평생을 보내며 이 지역의 유무형의 선교 인프라를 깔아 호남선교의 토대를 마련한 하위럼 선교사의 선교 일대기를 담은 책이다. 그 내용을 수회에 나누어 본지에 실는다.

제 1 장 하위럼(William B. Harrison)의 고향 캔터키 서부로 가는 관문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이전에는 주로 동부 해안가에 사람들이 몰려 살았다. 1750년에 토마스 워커(Thomas Walker)라는 영국인 의사가 애팔래치아 산맥을 넘어 서부로 가는 고갯길을 발견했는데 얼마 후에 탐험가 다니엘 분(Daniel Boone)이 사람들을 이끌고 협곡을 넘어와 이 지역에 살던 인디언들을 몰아내고 정착하면서 이 땅을 캔터키로 불렀다. 이때부터 캔터키는 서부로 가는 관문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마침 미국이 독립을 외치며 영국과 전쟁을 벌이자, 캔터키를 잃었던 인디언들은 마침내 백인들을 쫓아낼 기회로 여기고 정착민들을 배후에서 공격하기 시작했다. 다니엘 분(Daniel Boone)의 딸을 포함한 몇몇 정착자들이 인디언에게 납치되었던 사건도 이 무렵의 일로, 이때 인디언들을 쫓아가 붙잡힌 사람들을 모두 구출했다는 다니엘 분의 이야기는 서부 개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설이 되어 오랫동안 회자가 되었으며, 그의 무용담은 후에 <모히칸족의 최후>라는 소설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남북전쟁과 캔터키

토착 인디언들을 밀어내고 캔터키에 정착한 백인들은 비옥한 이 땅에 아프리카에서 싣어온 흑인 노예들을 끌어들여 대규모로 담배와 목화를 경작해 엄청난 호황을 누렸으나, 반면에 노예들의 삶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했다.

캔터키 옛집에 햇빛 비치어
여름날 감동이 시절
저 새는 긴 날을 노래 부를 때
옥수수는 벌써 익었다
마루를 구르며 노는 어린 것
세상을 모르고 노나
어려운 시절이 닥쳐오리니
잘 쉬어라 캔터키 옛집
잘 쉬어라 쉬어 울지 말고 쉬어
그리운 저 캔터키 옛집 위하여
머나먼 길 노래를 부르네
지금은 미국의 민요로 흥겹게 불리네

노래지만, 알고 보면 흑인 노예들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고향을 떠나 낮모르는 곳으로 팔려 갈 때, 혈육과 헤어지며 눈물로 부르던 가슴 아픈 이별가였다.

민요에서처럼 캔터키는 노예주였다. 캔터키와 오하이오를 남북으로 나누는 오하이오 강이 미국을 지역적으로 가르는 경계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오하이오는 자유주의를 내세웠고, 캔터키는 노예제를 지지했다. 그러나 정작 1861년 남북전쟁이 발발하자, 캔터키는 노예제를 옹호하면서도 북부와도 손을 잡고 중립 지대로 남고자 했다.

이를 지켜보며 못마땅해하던 남군이 그해 여름 캔터키주의 서부를 공격하며 응징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북부에서도 윌리시스 그랜트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 순식간에 퍼두카(Puducuh)를 점령해버리고 말았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주 정부는 자신들이 주를 지키는 명분을 앞세워 스스로 군대를 만들어 남군과 대치하면서 주민들의 정서와는 달리 결과적으로 북부의 편에 섰다.

이처럼 캔터키는 점령지대라는 지정학적인 특성으로 말미암아 남북 어느 쪽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요충지였기 때문에 캔터키는 남북전쟁 내내 전쟁터가 되고 말았다. 1862년 1월 북군은 밀 스프링스(Mill Springs)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8월에는 리치먼드(Richmond) 전투에서는 남군이 이겼으나, 곧이어 10월에 있었던 북군의 부엘(Don C. Buell) 장군과 남군의 브래그(Braxton Bragg) 장군이 이끄는 페리빌(Perryville) 전투는 남북전쟁에서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투로 양쪽 모두 엄청난 피해를 입었으나 결국 남군의 패배로 막을 내리고 말았다.

1865년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캔터키 주민들의 민심은 주 정부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여전히 남부에 강한 동정심을 보였다.

노예제의 폐지로 일순간에 대농장의 지주들이 몰락하면서 남부의 경제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게다가 북부의 주도로 이루어진 구조조정으로 미국의 산업이 급격하게 재편되면서 서부로 향한 철도가 놓이자 오하이오 강을 따라 형성되어 왔던 물류 산업들은 순식간에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다. 잇달아 남부의 젓줄, 미시시피강의 뱃길을 따라 교역을 하던 강변의 작은 항구들마저 속속 몰락하면서 대부분의 남부의 다른 주들과 마찬가지로 캔터키 경제 역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었다.

몰락한 캔터키의 농장주들은 자구책을 강구했다. 1870년대부터 서부 진출을 위한 말의 수요가 급증하는 점에 착안하고, 담배와 목화 대신 초지를 일궈 말을 사육하면서 캔터키를 점차 종마산

업의 중심지로 탈바꿈해 활로를 뚫는 한편 사양길로 접어들던 담배 대신 옥수수를 재배하고, 다시 옥수수를 발효시킨 위스키를 빚어내 캔터키를 위스키의 고장으로 만들어 갔다. ‘버번 위스키’(Bourbon Whisky)로 불리는 캔터키산 위스키는 이렇게 탄생했으며 호밀을 원료로 한 ‘스카치 위스키’를 대신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출생과 성장

하위럼(William B. Harrison)은 남북전쟁의 포화가 멈추고 그 이듬해인 1866년 9월 13일 캔터키주 레바논(Lebanon, KY)에서 태어났다. 캔터키는 그의 증조부가 버지니아에서 이곳으로 이주한 이래 그의 가족사의 주 무대가 된다.

그의 조부 윌리엄 해리슨(William Burr Harrison)이 20세 나이에 결혼해 아들 하나를 두었으나, 안타깝게도 결혼 5년 만에 아내가 죽고 말았다. 얼마 후 그의 조부는 김스(Elizabeth Gibbs)라는 아가씨와 재혼해서 아들 하나를 더 두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재혼한 아내와 핏팅이 아들을 낳겨둔 채 자신이 세상을 뜨고 말았다. 이때 조부가 후처 김스(Elizabeth Gibbs)에게서 얻은 그 아들이 바로 하위럼의 아버지 찰스(Charles B. Harrison)였다. 살길 막막했던 김스는 얼마 후 어린 찰스를 데리고 재혼하게 된다. 하위럼의 조모 김스와 재혼한 남편 사이에는 자식이 없이 찰스(Charles B. Harrison)만 외아들로 키웠다.

찰스는 어렸을 때 돌아가신 생부의 농장에다 자식이 없이 사망한 계부의 농장까지 물려받으며 전형적인 농장주로서 자리를 잡으면서 28살이 되던 1858년 8살 연하의 아가씨 엘리사(Eliza Lisle)와 결혼해, 그녀와의 사이에 6남매를 낳았다. 하위럼은 그중 셋째로 위에 누이와 형이 하나씩 있었고, 아래로는 남동생과 두 명의 여동생이 더 있었다.

남북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는 캔터키주 여느 농장주들과 마찬가지로 찰스(Charles B. Harrison) 역시 담배를 경작해 짙은 호황을 누렸으나 앞서서도 언급했듯 노예 해방령이 내려지면서 그의 담배농장도 예외 없이 급속히 사양길로 접어들고 말았다.

남부의 노예들은 해방이 되자 자유로운 삶을 구가할 수 있다는 기대로 크게 반겼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하루아침에 농장주로부터 독립해 자신이 살던 농장을 떠날 수도 없는 처지였다. 말만 자유 신분이 되었지, 생계가 여의치 않은 흑인들은 그대로 주인집에 눌러앉아 하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진유철 칼럼

공홀히 여기는 자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자, 다섯 번째는 “공홀히 여기는 자”입니다. “공홀”이라는 말의 뜻은 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거나 징계를 받아 죽게 된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게 하는 도움을 뜻합니다.

구약에서는 약 150회나 ‘헛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90% 이상이 하나님 성품과 연결되어 쓰였습니다. ‘조곤 없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며 변함없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신약에서는 27회나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자비, 불쌍히 여김, 동정’이란 뜻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누가복음 10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다 빼앗기고 피투성이 되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어주는 사마리아인을 통해 공홀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십니다. 먼저 대상이 누구냐를 따지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가를 확인한 후에 도와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는 언제나 비참함을 줍니다. 죄로 인해 비참해진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값없이 베풀어주는 공홀뿐입니다. 또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자기 체면이나 이익을 생각했다면 결코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Not I의 태도로 시간과 돈과 정열을 다 쏟아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홀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임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본시 눈물을 많이 흘리고 감격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말도 부드럽고 눈동자도 따뜻합니다. 그렇다고 공홀이 아닙니다. 공홀은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이와 같은 공홀의 완벽한 예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서 죽게 한 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인생을 공홀히 여기셨습니다. 자동 지옥에 갈 죄인을 살리시려고 사람으로 모 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공홀입니다.

공홀을 심으면 공홀의 열매를 얻습니다. 사과 씨를 뿌리면 복숭아가 아니라 반드시 사과 열매를 맺듯이, 공홀을 심으면 공홀의 열매를 얻습니다. “공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홀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사실 우리 모두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죄를 짓게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공홀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왕에게 일만 달란트, 즉 6천만 데나리온의 빚을 탕감 받은 자가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자 다시 그를 불러 옥에 가두었다고 말씀합니다. 공홀은 이 세상에서나 천국에서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또 내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의 사명을 순종한 지난 주간의 멕시코 단기선교나 WG 중고등부의 멕시코 단기선교와 페루와 도미니카 단기선교를 통해 공홀히 여기는 믿음이 증거 되므로 공홀히 여김을 받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샬롬!

2024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세계 최고의 교수진,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실용적인 사역 대비, 오프라인 수업, 미국 비자 (I-20) 발급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ABHE, ATS, AACS 인증
기독교대학(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ATS, ABHE, AACS 인증
학부 | 신학, 글로벌경영학, 가정상담학, 교육학, 중국어 신학
신학대학원 | 목회학, 목회학 석사, 목회학 석사, 목회학 석사, 목회학 석사, 목회학 석사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ATS, AACS 인증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AACS, ATS 인증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687-1649 / KEB@GS.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 (626) 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어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lis.org
학교주소 :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MATS 선교학 석사, M.Div 목회학석사, Th.M 신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 (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ia.edu

Solomon University

광복 제79주년 8.15 기념 경축 음악회

34th Annual The Solomon University Scholarship Fundraising Music Concert

2024년 8월 10일(토), 오후 3시



Wi Young Oh
Tenor



HeeWoo Kim
Soprano



SangKeun Chang
Baritone



Young Joo Lee
Soprano



JungRok Oh
Tenor



Rev. Esther Baek, Ph.D.
Solomon University President



Suk Young Kim
Soprano



Jinyoung Jang
Kyung Shin Choral
Conductor



Kyungmi Yoon
Piano



Haesook Roh
Evergreen Choir
Conductor



YaeJoo Hwang
Violinist

주최:



SOLOMON UNIVERSITY

주 관

S. Immanuel Mission Church, Healing Mission Center

장 소

남가주새누리교회

975 S Berendo St,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3-4982

연락처

후원 및 광고 문의: (323) 708-9191 / (213) 381-7755 Tickets: \$30.00



PAY TO THE ORDER

SIMC Tax exemption 세금공제

Solomon University

Rev. Esther Baek, Ph.D. President

Mailing: 3915 W. 7th St., #304, Los Angeles, CA 90005

E-mail: solomonuniversity@gmail.com

후원단체: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로스엔젤레스 한인회, 민주평통 LA,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 남가주 한인 목사회, 남가주 한인 여성 목사회, 서남부 연합회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LA G-CEO 4기, Man Hee Foundation, 조선일보, 기독교일보, 크리스천비전, 라디오 서울, 지구촌 부흥사협회, America California University, 3.1 여성 동지회, 300용사 부흥단, 강남 생수 교회, 김기현 변호사, 우리방송국, CBS TV 방송국, AKUS 한미연합회 L.A, 베버리 치과 병원, 남석환 안과병원, KBC TV, JGP Health Shoes Inc., Brothers BBQ

김한요 칼럼

선교대회에서 만난 선교사님들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한인세계선교대회에 참석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방방곡곡에서 섬기시던 500여명의 선교사님들이 미국을 방문하는 기회를 가지며, 함께 네트워킹하고 서로의 정보를 나누며 교제하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지역 교회들과 연합해서 대회가 잘 치뤄지도록 협력하여 시너지효과도 좋았습니다. 첫날 집회부터 하늘을 찌를듯한 기대로 예너

지가 총만했습니다. 첫 예배의 베델워십 팀 찬양 인도도 지난주 설교에서 나는 “합창”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구원자임을 찬양하는데,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인사를 나눌 때마다

찾아오셔서 주셨던 말씀은 “예배 속에 주시는 은혜가 위로가 되었습니다”였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이렇게 합창의 소리로 예배를 드린 적이 드물었는데, 모처럼 가슴이 뚫리는 ‘시원한’ 예배를 드리며 재충전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을 만나며, 우리에게는 당연한 듯한 예배의 은혜가 그 누구에게는 일년 내내 손꼽아 기다리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솔직히 선교사님들을 만나며 깨닫는 은혜가 예배만이겠습니까? 아마 모처럼 먹는 맛있는 한국음식도 향수를 달래는 것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은 성

도들이 함께 섬기는 모습도 너무 감격스럽다 하셨습니다. 주방에서 애쓰시는 봉사자들의 모습과 셔틀과 주차장에서 애쓰시는 분들을 보는 것도 선교사님들에게는 정말로 그리운 성도들의 모습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번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섬긴 연륜이 평균 20년은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결같이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감동의 갈채를 보내며, 동시에 젊은 선교사님들이 이런 선교대회에서도 드물게 보인다는 것이 내일의 선교에 대한 어두운 그들이 아닌가하는 걱정도 다가옵니다.

성도님들도 함께 선교대회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수많은 이름 모를 군중 속에서 꽃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나와보니 알겠다는 말씀도 귀담아 들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우리 자녀들과 자원 봉

사자들은 워싱턴 DC에 가서 마침 제 21차 북한자유 주간을 맞이하여 탈북자 강제복송을 금지하는 일을 위해 미국 정치인들을 만나며 홍보에 나섰고, 저녁마다 Timothy Cho 같은 탈북자들을 초대해서 북한의 적나라한 현실을 전해 듣고, 주님 앞에 복음 통일의 간절한 기도를 올려 드렸습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존경심이 드는 선교사님들을 배웅하며, 오랜 가족과 헤어지는 이별의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마치 후방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전방을 향해 다시 출정하는 군인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후방의 우리들은 하루도 빠짐 없이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면 그리웠던 가족을 다시 만나는 반가움이 클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다시 만나요. 전방의 승리의 소식과 함께 감격 속에 만나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강태광의 신앙 명시 산책 월드쉐어 USA

처음 것을 드립니다! 존 베일리

처음 것을 드립니다! - 존 베일리

내 영혼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오늘 저의 첫 생각이
당신 생각이 되게 하시고

저의 첫 바람이
당신을 찬양하는 것이 되게 하시며

제 입에서 나오는 첫마디 말이
당신의 이름이 되게 하시고

저의 첫 행동이
당신 앞에 기도하고자 무릎 꿇는 것이 되게 하소서.

이시는 영국 출신의 목사 존 베일리의 기도시 <처음 것을 드립니다.>입니다. 이 기도시는 존 베일리의 <기도 일기(A Daily of Private Prayer)>에 나오는 기도문입니다. 존 베일리의 기도일기는 60개의 기도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여 한 달 내내 기도하도록 고안된 기도문 집입니다.

이 시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드리는 아침 기도입니다. 기도 전체가 처음 것을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생각을 주님께 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사사키 후미오는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자신의 책에서 인간은 하루에 6만 가지 생각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6만 가지 생각

중에 95%가 어제와 똑 같은 일을 생각하고 있으며, 그 생각의 80%는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분량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는 어떤 생각이 하루의 첫 생각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시인은 둘째로 “자신의 첫 바람이 당신을 찬양하는 것이 되게 하시며”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기대와 바람을 갖고 삽니다. 그 많은 바람과 기대 가운데 주님을 향한 찬양이 바람이 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바람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시인은 우리의 첫 바람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셋째로 욕망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루의 첫 욕구가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욕구가 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경배와 찬양의 자리에서도 인간적 욕구와 욕심이 마음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일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갖는 욕구가 주님을 경배하는 욕구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시인의 네 번째 관심은 말입니다. 하루의 첫 말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말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살다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

해 보이는 말들이 많습니다. 아침에도 할 말이 많습니다. 존 베일리처럼 하루를 시작하는 첫 언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시인의 다음 관심은 행동인데, 무릎 꿇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루가 기도로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습관적으로 잠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첫 행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존 베일리는 1886년 3월 26일 스코틀랜드의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목회자 가정에서 가정예배와 일상의 경건 생활을 배웠고 자신도 철저히 실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전에 존경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의 깊은 학문과 리더십 그리고 경건한 삶이 선한 영향력을 남겼습니다. 칼빈주의 전통에서 성장한 그는 일상의 경건 생활을 특히 강조하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존 베일리는 20세기 중반 바르트, 브루너, 니버, 볼트만, 틸리히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인 신학자였습니다. 존 베일리는 목사로 설교가입니다. 그는 또 영국, 캐나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존 베일리의 형제들 모두 사역자였습니다. 동생인 도널드 맥퍼슨 베일리는 세인트 앤드류 대학교에서 조직 신학 교수를 지냈고, 다른 동생인 피터 베일리는 의료 선교사로 인도에서 선교하는 의사로 활동했습니다.

존 베일리는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신학 과정을 마친 뒤 미국 뉴욕의 오번 신학교, 캐나다 임마누엘 신학교, 뉴욕 유니

온 신학교에서 교수하다가 1934년에 모교인 에든버러 대학교의 부름을 받아 그곳에서 은퇴할 때까지 조직신학을 가르쳤습니다.

존 베일리는 그의 신학과 경건생활로 국민적인 존경을 받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1947년에 영국 왕실 목사로 임명되었습니다. 베일리는 기독교 사회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자신이 속한 교단과 교회연합기구에서도 일했습니다. 그는 스코틀랜드 교회 총회의 총회장(1943년)과 세계교회협의회(WCC) 중앙위원(1954년)을 지냈습니다.

존 베일리는 신학자로 목회자로 많은 책을 남겼습니다. 그가 쓴 책으로는 <종교해석(The Interpretation of Religion)>,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Our Knowledge of God)>, <현대 사상에 있어서 계시의 개념(The Idea of Revelation)>, <독서의 일기(A Daily of Readings)> 등이 있습니다. 특히 존 베일리의 <기도 일기(A Daily of Private Prayer)>는 한국에서 출판되었고 독자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강태광 목사(WorldShare USA 대표, 시인)

전문작가와 함께 하는
내 인생의 자서전 쓰기

당신이 지금 여기에,
뜨겁게 뚫리며 살았다는 것,
그 노동하고 한란한
삶의 흔적을 남기세요.

자서전을 통해
당신의 값진 순간은
눈부신 영원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기독일보
T.(213)739-0403, (213)434-1170
www.cowriter.co.kr
chdailya@gmail.com

기록되지 않은 것은 기억되지 않는다!
Record is Memory

믿을 수 있는 최고의 의료진



서울메디칼 그룹 주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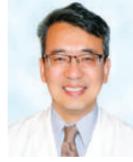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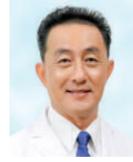
- | | | | | | | | |
|---|---|---|--|--|--|--|---|
| 
한경모
Kyung Mo Han | 
조지 인
George In | 
백상현
Sang Hyun Baik | 
이영직
Young-jik Lee | 
이선우
Sonwoo Lee | 
강두만
Deno Kang | 
강훈구
Hun Ku Kang | 
다이아나 김
Diana Maria Kim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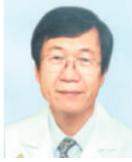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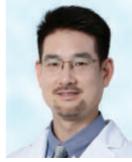
- | | | | | | | | | |
|--|---|---|--|--|---|---|--|--|
| 
카렌 김
Karen Kim | 
김경애
Kyoung Ae Kim | 
김성현
Sung Hyun Kim | 
김승현
Seung Hyun Kim | 
김영진
Evan Kim | 
김일영
Il Young Kim | 
김정한
Peter Kim | 
스티브 박
Steve Park | 
손향은
Hyang Eun Sohn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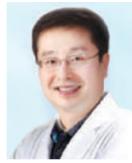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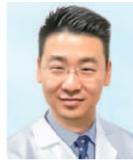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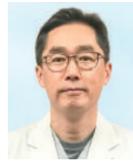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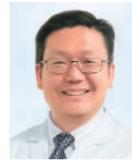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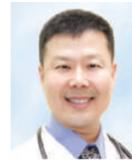
- | | | | | | | | | |
|--|---|---|--|--|--|--|--|--|
| 
송명재
Mark M. Song | 
신동원
Dong Won Shin | 
로리 안
Lauri I An | 
안승록
Seung R An | 
윤은주
Eun Joo Yoon | 
잔 음
John Ehum | 
이용태
Yong Tai Lee | 
임대순
Dae Soon Rheem | 
임영빈
Justin Rheem |
|--|---|---|--|--|--|--|--|--|

- | | | | | | | | | |
|---|---|---|---|--|---|--|---|--|
| 
임대순
Dae Soon Leem | 
정만길
James J. Jung | 
정 준
Jun Chung | 
정희수
Hee Soo Jeong | 
조아라
Ahra Cho | 
주우진
Woojin Joo | 
프랭크 최
Frank Choe | 
허남형
Brian Huh | 
최순아
Soon Ah Choi |
|---|---|---|---|--|---|--|---|--|



- | | | | | | | | |
|--|---|--|--|---|--|--|--|
| 
김홍식
Hong Sik Kim | 
폴 장
Paul S. Chang | 
하태준
Robert T. Ha | 
잔 김
John Kim | 
홍훈기
Hoon Gi Hong | 
김방선
Bang Sun Kim | 
송채원
Chaewon Song | 
강수웅
Soo Woong Kang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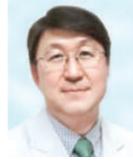
- | | | | | | | | | |
|--|---|---|---|--|--|--|---|--|
| 
김대중
Dae-choong Kim | 
김성현
Sung Hyun Kim | 
김종진
Jongjin Kim | 
김진세
Chin Se Kim | 
박재만
Jae Man Park | 
방재훈
Jason J. Pang | 
송명재
Mark M. Song | 
신창은
Chris C. Shin | 
안규동
Kyu Dong Ahn |
|--|---|---|---|--|--|--|---|--|

- | | | | | | | | |
|--|--|---|---|---|---|---|--|
| 
안우성
Woo Sung Ahn | 
오문목
Moon M. Oh | 
이광혁
John K. Lee | 
이용호
Yong Ho Lee | 
이효구
Joseph Yi | 
알버트 장
Albert Chang | 
최원배
Wonbae Choe | 
리차드 한
Richard S. Han |
|--|--|---|---|---|---|---|--|



- | | | |
|--|--|--|
| 
석태영
Larry T. Suk | 
임영빈
Justin Rheem | 
김학준
Philip Kim |
|--|--|--|



- | | | | |
|--|---|--|---|
| 
장국일
Kook Il Chang | 
리사 김
Lisa Kim | 
박성수
Richard Park | 
유경수
Kyung Soo Yoo |
|--|---|--|---|



- | | | | |
|---|---|---|---|
| 
백성렬
Jason S. Paek | 
변상준
Sangjun Byeon | 
오희용
Hee Yong Oh | 
신예용
Yeyong Shin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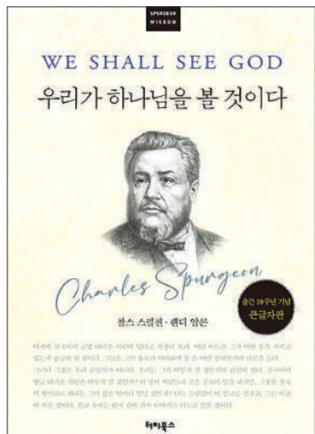
한인 의료진이 가장 많은 믿을 수 있는 최고의 의료진으로 구성된 서울메디칼 그룹이 어르신들을 정성껏 돌봐드립니다.



520 S Virgil Ave #107, Los Angeles, CA 90020 (전화) 213-389-0077 / 800-611-9862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천국이 내게 있다

천국, 힘들 때 가끔 꺼내보는 희망의 장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찰스 스펠전, 랜디 알콘 | 서경의 역 | 터치북스 | 336쪽 | 24,000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위대한 용기가 생긴다. 뛰어난 설교로 수만 명에게 매주 복음전례를 전했던 찰스 스펠전, 그리고 그의 설교를 사랑했던 랜디 알콘의 영성묵상. 천국에 대한 스펠전의 통찰에 반하다 - 랜디 알콘

나는 스펠전의 천국묵상 중에 나에게 최고의 기쁨과 감동을 주었던 구절만을 따로 모아 정리했으며, 동일한 주제에 관해 평소 내가 깊이 묵상했던 내용으로 적절한 해설을 곁들였다. 그러므로 각 장마다 처음 글은 스펠전의 설교에서 가져온 것이며, 두 번째 글은 거기에 대한 나의 묵상이자 해설이라 할 수 있다

스펠전은 평생 대략 천만 명에게 설교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설교는 63권의 책으로 묶인 총 3,561편에 달하는데, 발행되는 데 63년이 걸린 그의 설교집을 통해 말씀을 접한 이들까지 포함하면 오늘날까지 스펠전 설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의 수는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터치북스 출판사는 <스펠전 위즈덤 시리즈>로 5권의 설교집을 최근 출간했고(출간 10주년 기념, 큰 글자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책으로 약 40편의 천국에 관한 설교를 발췌해 한국 독자에게 선사한다.

이 책의 특징은 천국에 관한 방대한 연구를 한 랜디 알콘이 직접 스펠전의 천국 묵상 중 자신에게 “최고의 기쁨과 감동을 주었던 구절만을 따로 모아 정리했다”는 것이고, 그 정리와 함께 자신의 묵상으로 해설을 덧붙였다는 것이다.

총 4부로 구성된 이 책은 ①다가올 세상의 영광 ②하나님의 얼굴을 보라 ③천국을 준비하는 삶 ④영원한 기쁨으로 들어가라 등의 큰 주제 아래 각 10편의 설교를 분류했고, 마지막 40번째 설교는 스펠전이 병세를 이기지 못하고 사망하기 6개월 전 선포한 말씀으로 “이 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그의 고백이 참으로 사실임을 생생하게 입증한다.

사도 바울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롬 8:18)”라고 단언했다. 장차 다가올 천국의 영광은 현재 신자가 겪는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롬 8:17)”고 말했다.

천국이라는 영적 현실을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신자는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신자만큼 불쌍한 자가 없다(고전 15:19).

천국이라는 영적 현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을 가지 있게 만든다. 참고 인내할 만한 이유

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영적 현실은 눈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해지면 자연스럽게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그래서 랜디 알콘은 스펠전의 설교 중 처음으로 이 책에 “땅과 하늘 사이에는 미세한 경계가 있을 뿐이다.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생각보다 훨씬 가깝다. 천국은 그렇게 먼 곳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이다. 천국은 너무나 가까운 곳이라서 우리는 그곳의 왕이신 분께 언제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분은 우리의 질문에 대답해 주신다.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그곳에 있을 수 있다(22쪽)”는 명언을 실었다.

천국은 힘들 때 가끔 꺼내 묵상하는 희망의 장소가 아니다. 죽을 때가 되어야 생각해 보는 최종 목적이 아니다. 천국은 훨씬 가깝다. 언제나 묵상하고 생각하고 심지어 그곳에 계신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많은 신자가 현재의 고난 속에 갇혀 지낸다. 마치 천국이 없는 것처럼, 있어도 실제로 위로와 소망을 전혀 줄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스펠전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늘에 쌓여 있는 영광스러운 보화를 보라고 설득한다.

“무거운 짐을 진 형제자매들이여, 현재의 고난 속에 갇혀 지내지 마라. 오히려 과거의 기쁨을 돌이켜 보고, 영원한 태고의 무한한 축복을 상기하라. 여러분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 기록하셨다. 또한 지금 이 땅에서도 주시지만 그곳에서도 영원토록 주실 그분의 자비와, 하늘에 사무칠 만큼 쌓아 두신 그 영광을 바라보라. 천국의 노래를 부르는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다(35쪽).” 하나님은 창세 전에 신자를 택하시고 아들을 보내 그들의 죄를 씻으셨으며, 때가 되어 그들을 회심하도록 부르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셨다. 바울은 이것이 신자가 서로를 위로하는 말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살전 4:18, 이러한



©Ben Vaughn/ Unsplash.com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그날이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인내하게 하는 참된 위로가 되기 때문이다.

스펠전의 설교가 사랑받는 이유는 깊은 영적 성찰로 하나님 말씀에 담긴 약속을 진중하게 믿고, 그것을 생생한 표현과 다채로운 비유 등으로 독자/청자에게 전달하기 때문이다.

랜디 알콘이 선정한 스펠전의 천국 설교를 천천히 오래 묵상하고 그 의미를 마음에 되새겨 보라. 알콘이 결들인 적용을 이끌어내는 묵상을 통해 천국을 가까이에서 생각해 보고 또 믿음의 눈으로 그 영적 현실을 붙잡아라.

스펠전이 말한 것처럼 ‘천국에서 금방 내려온 사람이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든지 천국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우리가 닮아가길 원할 것이다.’ 그렇게 영적인 눈으로 천국을 보고 그 방식대로 이 땅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자. 그것은 신자의 삶을 천국처럼 만들고, 신자를 둘러싼 세상 사람에게 천국을 소개하게 될 것이다.

스펠전과 알콘의 <우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가 이 책을 읽는 독자에게 천국으로의 짧은 여행을 선사하기를 바란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 묵상 | 김영희 권사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디모데 3:2

To slander no one, to be peaceable and consider, and always to be gentle toward everyone.

TITUS 3:2

출가산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심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 거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타주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새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 서울 (310) 538-3333 | LA (323) 582-2424 |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시리즈 <돌풍> (1)

성경 인용하며 정치 난맥상 지적하는 넷플릭스 <돌풍>



한국의 <하우스 오브 카드>라고 불릴 만큼 출중한 연출과 서사를 선보이는 정치 느와르 <돌풍>.

정치 권력 본모습 고찰 느와르 한국판 <하우스 오브 카드> 진보 진영 위선·비리 잘 드러내 보수로 대체해도 위화감 없어

◆정치권력의 본모습: 모략, 협잡, 비리와 기득권 사수를 위한 야합의 집약체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돌풍>은 정치 복수극으로서 여러 진보 진영 정치인들을 연상시키는 주요인물이 등장해 화제를 모은 작품이다.

주인공 박동호 총리(설경구 분)는 절친한 동료들과 함께 대통령과 그 최측근, 그리고 재계서열 1위 재벌이 얽힌 정경유착 비리를 파헤친다. 그러다 오랜 친구인 서기태 의원(박경찬 분)이 의문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 박동호 자신도 긴급체포를 당할 위기에 놓인다.

친구의 죽음이 꾸며진 자살인 것을 확인한 박동호는 긴급체포 직전 부패한 대통령을 암살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장악한다. 박동호는 권좌에 오래 앉아 있을 생각이 없다. 그는 단지 그의 친구를 죽음으로 이끌고 간, 그리고 대한민국 국정을 흔잡케 한 비리 정치인들과 재벌들을 한꺼번에 처단할 힘과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돌풍>이 공개된 후 정계의 반응은 극적이였다. 누가 보더라도 민주당 계열 진보 진영 정치인들을 연상시키는 인물 설정 때문에, 야권에서 이 작품에 대해 극렬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작품에 등장하는 부패한 정치인들과 그 부패한 자들을 처단하는 주인공 모두 명백한 악인으로 묘사되기 때문이다. 드라마 전체가 현 민주당 계열 진보 진영 주요 정치인들을 마치 정치적 모략의 흑막이나 비리를

자행하는 모리배로 취급하는 듯하다. 당연하게도 보수우파와 진영 인사들은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 정치인들의 위선과 비리 행각을 잘 드러내는 작품이라며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 미디어에서 아주 드물게 진보 정치 진영 정치인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풍자가 이루어지는 데 대해 반가움을 드러내는 중이다.

그렇지만 <돌풍>의 서사는 미디어 속 이미지를 둘러싼 보수와 진보 정치 진영의 기싸움 차원에서 바라볼 사안은 아니다. 사실이 작품 속 주요 인물을 진보 진영이 아닌 보수 진영 정치인들로 대체해도 서사에는 별 위화감이 없을 것이다. 그만큼 한국의 보수와 진보 정치 진영 모두 정치 모략이나 협잡, 비리와 기득권 사수를 위한 야합의 작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돌풍>의 서사는 보수, 진보 각 진영 인사들의 신경전 관점이 아니라, 정치 권력의 본모습에 대한 고찰이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돌풍>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넷플릭스가 확실히 정치 느와르 장르에서 강점을 보인다는 것이다. 넷플릭스가 OTT 시장의 선두 주자가 될 수 있도록 해준 최대 공신 역할을 한 작품은 <하우스 오브 카드>이다. 넷플릭스의 첫 오리지널 시리즈 작품으로서 미국 정치판이 모략과 음모와 비윤리적 협잡으로 가득함을 신랄하게 풍자하는 작품이다. <돌풍>에 등장하는 여러 설정과 장면들은 <하우스 오브 카드>의 오마주로 도배돼 있다. 자신의 정치적 야망에 걸림돌이 되는 이들을 비정하게 살해하는 주인공, 그리고 현 대통령을 모략으로 치위 버리고 대권을 잡는 권력 2인자의 치밀한 정치공학 같은 것은 <하우스 오브 카드>의 설정과 장면들을 연상시킨다. 실제로 많은 평론가들이 <돌풍>을 한국의 <하우스 오브 카드>라며 두 작품을

비교한 바 있다.

◆정치 권력의 한계: 빛으로 어두움을 이기지 못하는 탐심의 각축장

넷플릭스가 바라본 정치권력의 본모습은 극단적인 지배욕의 총돌이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다. <하우스 오브 카드>나 <돌풍>의 설정과 사건들이 조금 과장되고 자극적이긴 하지만, 부패한 권력을 견제하고 심판하려는 강직한 공직자나 정치인들이 의문스러운 자살로 생을 마감하거나 사회적 지위를 박탈당하는 일들은 우리 한국 사회 정치 현실에서도 비밀비재하게 일어났던 일들이다.

여기에는 보수와 진보의 구분이 없다. 기독교적 관점으로 보더라도 세속 권력은 극단적 욕망의 집합체로서 매우 쉽게 타락하고 오용된다.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사도들 모두는 이구동성으로 세속 권세자들에게 순복하라고 가르친다.

그렇다 해서 사도들이 세속 권력의 공정함을 신뢰했던 것은 아니다. 사도들은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의 정치 권력은 자원을 지배하려는 욕망이 집약되어 있는 탐욕의 덩어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탐욕은 우상숭배(골 3:5)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세속 권력에 순복하라 가르쳤다. 신앙의 자유에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는 임의로 권세자들에게 저항하지 말고 그들의 제도를 따르라고 지도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권세라는 것이 비록 인간의 탐심으로 오염되기는 했어도 그 원형은 하나님의 권세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세속 권력이 비록 부패하고 오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마저 없으면 평안한 신앙생활을 영

위하기가 불가능한 무법천지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치 권세라는 개념 자체는 원래 하나님께서 선하고 신실하신 뜻을 따라 제정하신 것이다. 플라톤 철학 관점으로 설명하자면 이는 가장 보편적이고 완전한 원형, 즉 형상이다. 하지만 세속의 정치 현실에서는 정치 권세라는 원본 형상이 여러 양태로 분화되어 불완전하고 왜곡된 형태로 정치현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돌풍>은 한국의 정치현실 속에서 정치 권세의 원형과 현상이 어떻게 서로 괴리되어 있는지를 훌륭한 연출과 서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 작품에서 흥미로운 점은 주인공 박동호가 정치 권력의 현실적인 본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성경의 공의와 심판 개념을 자주 인용한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 정치 드라마치고는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 <하우스 오브 카드>의 경우 애초 작품 전체 배경이 기독교 문화를 근간으로 삼는 미국의 일상과 정치 현실이므로 당연히 기독교적 서사 요소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반면 <돌풍>은 드물게도 성경의 공의와 심판 개념을 가지고 한국 정치 현실의 암울함과 난맥상을 지적한다. 이런 연출은 서구권 정치 드라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으로, 세속의 정치 권력이 그보다 상위 원리이자 질서인 하나님의 권세와 섭리에 맞춰 운용돼야 한다는 원칙을 상기시키는 장치로 활용된다.

<돌풍>은 이런 연출 방식을 따르는 듯하면서도 주인공 박동호의 다크 히어로(의로움을 달성하기 위해 폭력이나 살인과 같은 악행을 주저하지 않는 캐릭터)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기 위해 성경의 가르침을 크게 비틀어서 인용한다. (계속)



넷플릭스가 OTT 시장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해준 최대 공신 역할을 한 <하우스 오브 카드>.

성경 통독으로 하나되는 공동체

“단 30분 녹음으로, 담임목사님의 오디오 성경을 만들어 보세요”

담임목사님 음성으로 전교인 성경통독 가능

60DAY 신약통독

김은호

2022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며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십니다 김은호 목사와 함께 60일 신약듣기

오디오 성경을 제작하시면 교회별 맞춤 성경통독, 성경듣기표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전교인 통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시 오디오 성경 특별 프로모션

🎧 프리미엄 패키지: 교회(담임목사)

\$6,600 ▶ \$5,500

- 오디오 성경 음원(wav, mp3), 고급 USB 패키지
- 바이블리 앱 업로드 \$교인 무료 이용
- 교회 맞춤형 바이블리 통독 서비스(음원편집 & 배너광고)
 - 성경 66권 기준 (권당 \$83)
 - 출석 교인 300명 이하: \$3,500(권당 약 \$53)

* 담임목사 + 원로목사 패키지

- \$5,000 (담임목회자) + \$3,000 (원로목회자)
- 교인의 데이터로 제작 시 별도 논의 필요

🎧 베이직: 개인(일반성도 및 부목회자)

\$3,300 ▶ \$2,500

단 한번의 녹음으로 영원히 기억되는 가족의 목소리, 나의 목소리

- 오디오 성경 음원(wav, mp3) 제공
 - 바이블리 앱 개인 성경 업로드(향후 예정)
 - 성경 66권 기준 권당(약 \$35)

개인 오디오 성경으로 믿음의 유산을 남기세요

기독교일보 T:(213)739-0403 chdailya@gmail.com

2·3대 '중도 사임' 지구촌교회, 위기 딛고 재도약할까?

이동원 목사 개척, 1994년 창립 후 폭발 성장 2010년 진재혁 목사 부임했지만 8년 후 사임 2019년 부임한 최성은 목사는 5년 만에 사임

지난 2019년 지구촌교회 제3대 담임으로 부임했던 최성은 목사의 사임 소식이 지난 14일 갑작스레 전해졌다. 앞서 제2대 담임이던 진재혁 목사 역시 중도 사임했던 터라 그 충격이 배가 되는 듯한 분위기다. 지난 1994년 창립돼 올해 30주년을 맞은 지구촌교회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

교회 홈페이지에 소개된 연혁에 따르면 미국에서 목회하던 이동원 목사는 1993년 한국에서의 교회 개척을 요청받았고, 그해 11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구촌교회를 시작했다. 이듬해 정식 창립예배를 드렸으며, 그해 말 장년 출석 교인들이 1천여 명에 이르며 본격 성장세에 들어갔다.

지구촌교회는 1995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로 교회를 확장 이전했다. 이 기간 장년 교인 출석은 1천 명에서 4천여 명으로 늘었다. 교회 측은 "주일학교가 크게 부흥해 인접한 4층 빌딩 전체를 교육관으로 임대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한 기간이었다"고 회고했다.

분당으로 옮긴 지 2년이 못 되어 주일 다섯 번의 예배로도 감당이 안 될만큼 폭발적인 성장이 계속되자 지구촌교회는 다시 수지신봉리 언덕의 신학교 건물을 매입함으로써 또 한 번 이전했다고 한다. 1999년에 부설기관으로 목회리더십연구소를 발족했고, 2002년 1월에는 소그룹 시스템인 '목장교회'를 본격 도입했다.

교회 측에 따르면 수지의 예배당이 다시금 포화 상태에 이르자 지구촌교회는 2003년 4월, 분당 미금에 있는 쇼핑몰 건물에 또 하나의 성전을 마련하고 비전센터로 명명했다. 수지 신봉리 성전과 분당 비전센터에 광케이블을 통한 쌍방향 송수신으로 동시예배를 드리는 "두 날개 성전시대가 도래한 것"이라고 교회 측은 설명했다.

2010년 4월에는 '위대한 명령, 위대한 동역'이라는 슬로건으로 '부활절 지구촌 목장 공동체 대축제'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31,000여 명의 교우들이 모인 자리에서 개최했다고 한다.

지구촌교회를 개척해 17년간 사역해 온 이동원 목사는 2010년 65세로 조기은퇴를 준비했고, 교회는 청빙위원회를 조직해 후임자를 물색했다. 이를 통해 진재혁 목사가 2010년 12월 26일 이 교회 제2대 담임으로 취임했다. 이동원 목사는 원로로 추대됐다.

그런데 2018년 9월 16일 주일예배 설교에서 진 목사는 지구촌교회를 사임하고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다소 갑작스런 사임 발표에 교인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당시 진 목사는 "힘들어서 떠나는 것 아니라, 더 힘든 곳으로, 비전을 다 이루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이루고자 떠나고자 한다"고 했지만, 정년이 안된 대형교회 담임목사가 선교를 위해 교회를



지구촌교회에서 글로벌 셀 컨퍼런스가 진행되던 모습. ©지구촌교회

사임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었던 터라 교회 안팎에서 그의 사임 배경을 두고 여러 설(說)이 제기됐었다.

제3대 담임인 최성은 목사는 이듬해인 2019년 지구촌교회로 부임했다. 최 목사는 침례신학대를 졸업하고 미국 남침례신학대학원(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학석사(M.Div)와 박사학위(Ph.D)를 취득했다.

수원중앙침례교회 대학부 전도사를 거쳐 2004년 10월 미국 남침례교단 소속 미국 내 선교사로 다리놓는교회(Bridge Community Church)를 개척했다. 2011년부터 지구촌교회로 부임하기 전까지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제일침례교회 담임목사를 역임했다.

그러나 부임 5년 만에 돌연 사임하게 됐다. 교회 측은 최 목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지구촌교회 담임목사직의 사임을 표명하셨다"며 "관련하여 다음 주에 있을 임시 사무총회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시 사무총회는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설교의 대가' '복음주의 4인방' 등의 수식어를 가진 이동원 목사와 함께 국내 대표적 대형교회로 성장해온 지구촌교회는 그러나 두 명의 후임목사들이 모두 중도 사임하면서 창립 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교계 한 관계자는 "어느 교회나 성장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곤 한다.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중요한 건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구촌교회가 과연 이번 위기를 넘어 재도약할 수 있을지 교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NEW CHURCH, 7주년 예배 드리며 새로운 향해

New Church(새교회, 담임 최순환 목사)가 창립 7주년을 맞아 지난 7월 14일(주일) 오후 1시에 이재환 목사(Kevin Lee, 새들백 교회 부목사)를 초청해 7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교회 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된 예배에서 최순환 목사가 개회 기도를 하고 이재환 목사가 "New Church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대하 6:7-11)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성경에서 7주년은 매우 특별한 해이다. 뉴처치가 7주년이 되었단느 것은 매우 큰 은혜"라며 운을 댄 그는, 솔로몬이 7년에 걸쳐 완공한 성전을 한나미게 봉헌하는 기도를 통해 뉴처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는 평균 하루에 3만 5천 개의 결정을 하며 살아간다.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나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 교회가 아닌 다른 것들이 그 중심의 자리를 빼앗는 것을 보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로 다짐하고 기도해 왔는데 어느

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른 우선 순위 뒤로 물러나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며,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나의 편의에 따라 결정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세상의 모든 왕들은 자신이 다스리는 동안 그 나라가 더 확장되고 부강해지는 것을 원하지만, 다투는 달랐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성전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그의 평생 소원이었으며 다른 것은 모두 그 뒷 순위였다"며 "여러분은 삶 가운데 어떤 바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했다.

그는 또한 바벨론에 끌려가서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던 이스라엘, 다니엘의 믿음의 뿌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드린 기도라며, "우리가 성전을 위해 하는 기도는 500년 이후의 역사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 나라가 세워지고 쓰러지더라도 누군가의 삶과 행동과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고 강조했다.

New Church는 2017년 7월 다운타운에서



New Church(새교회, 담임 최순환 목사 앞줄 가운데)는 7월 14일(주일) 창립 7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기독일보

청년 목회 및 불신자 전도를 중점으로 시작된 교회로, 판에 박히지 않은 획기적인 방식을 통해 청년들과 불신자를 인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청년 목회, 기도, 소그룹 및 온

라인 사역의 열정을 지닌 최순환 목사는 총신대, 아세아연합신대를 졸업했고,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조셉 리 기자

기독일보 주최

세대통합목회 목회자세미나

주제: 삼대동일신앙으로 명문가문을 이루자 (신명기 6장 2절)



강사: 김경운 총장
(현)광신대학교 총장
(전)아신대학교 법인이사
(전)총신대학교(합동)운영이사
(전)교육국장(개혁)
(전)필리핀 선교사
(전)GMS 파송이사
(전)목포제일노회 노회장

김경운 총장 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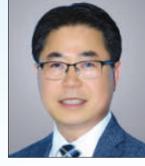
- 8월 21일(수) 오후 7:30
충현선교교회 (담임 국윤권 목사)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 8월 25일(주일) 오전 11:45
주은혜교회 (담임 최호년 목사)
808 Foothill Blvd, La Canada Flintridge, CA 91011

세미나 제목

- 1강 주님이 원하시는 삼대동일신앙 - 김경운 총장
- 2강 삼대동일 신앙을 세우는 방법 - 김경운 총장
- 3강 삼대동일 신앙의 실재 - 서인석 목사

- 날 짜 : 2024년 8월 20일(화) 오전 10:00~2:00
- 장 소 : 충현선교교회(담임 국윤권 목사)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 등 록 : QR 코드 스캔 후 등록해 주세요
- 등록비 : 무료
- 문 의 : 기독일보 213-434-1170

등록신청



강사: 서인석 목사
철학박사(Ph. D.)
(전) 광주제일노회 노회장 역임
(현) 창조교회 담임목사
(현) 바이블동서남북 (대표 윤대명목사) 한국 부원장
(현) 광신대학교 역사신학과 교수(전임)
(현) CTS 방송 자문위원(목포)

서인석 목사 집회

- LA 소망선교교회(김영호 목사)
3511 W Olympic Blvd #3FL, Los Angeles, CA 90019
- 8월 23일(금) 오후 7:00
- 8월 24일(토) 오전 11:00, 오후 7:00
- 8월 25일(주일) 오전 11:00

2024

ONE-POINT DRAMATIC SERMON

원포인트의 드라마틱한 강해설교 세미나

“청중을 사로잡는 강해설교 작성법, 이틀간의 세미나에서 확인하세요!”

2024년 7월 29(월)~30일(화)

- **시간** : 오전 9:30~오후 4:50
- **장소** : 한길교회(담임 고광선 목사)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 **등록방법** : QR코드 스캔 후 등록해 주세요
- **문의** : 213-434-1170

- **대상** : 신학생, 목회자, 선교사 등
- **특전** : 강의안 및 점심 식사 제공

선착순 50명!

온라인 신청



● 강사소개

- 계명대 (BA 영문과)
- 총신대 신대원 (M.Div. 목회학)
-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Th.M 구약학 수료)
- Calvin Theological Seminary (Th.M 신학약)
- University of Pretoria (Ph.D 설교학)
- 현아신대 설교학 교수
- 현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회장
- 저서 <설교의 삼중주> 등 다수

신성욱 교수
현 아신대 설교학 교수

세미나 소개

1970년부터 '3대지 설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원포인트 설교'가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주제로 30분 설교를 작성하기 어려워 여전히 많은 설교자들이 3대지 설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설교학 교수인 신성욱교수는 “원포인트의 드라마틱한 강해설교” 프레임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내용과 구성법, 전달기법 등에 대한 효과적인 기술들을 배우고, 성경본문에 충실하면서도 청중의 시선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 원포인트 설교작성의 방법들을 통해 새로운 설교의 지평을 열 수 있길 기대하며 남가주 지역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을 초청합니다.

공동주최 : 기독교일보, 월드미션대학교